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總選擧의結果
既成政黨勝利

一

지난 三十日 擧行한 總選擧의 結果는 民政 一七九, 政友 一七五, 社大 三七, 昭和 一九, 國同 一一, 東方 一一, 諸派 九, 中立 二五로 結局 野黨의 勝利로 歸하얏다。民政, 政友의 兩大政黨이 모두 野黨이엇스므로 今次의 總選擧가 野黨의 勝利로 歸할것은 벌서부터 豫想하얏든바이나 막상 開票를함에 잇서서는 一層 政府黨으로 認定된 昭和, 國同, 中立의 當選率이 零星하야 政府側의 期待와는 根本的으로 背馳되게되엇다。同時에 多少 增大되리라 미덧든 社大黨이 豫想以上으로 躍進하야 第三黨으로서의 重大한 所任을 演하게된것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다。

二

今次의 總選擧의 結果가 政府側의 期待에 어그러저 既成政黨에 勝利로 도라가고 新黨側인 昭和, 國同, 中立等의諸派가 不振한것은 主로 政府側의 主張에 國民의 信任이 不足한때문이다。即 庶政一新을 웨치고 나선 現內閣이 廣田內閣의 行해온 業績보다 나흔 點이 업슬뿐더러 도리어 廣田內閣에 比하면 積極味가 업스므로 林內閣이 果然 現在의 非常時局을 打開할만한 能力을가젓는지 疑問視하게된 때문이다。그러나 그러타고 既成政黨에 對한 同情도 큰것이아니니 이것은 民政의 當選者가 前回의 그것보다 減少되엇고 政友가 同數인 點과 또 二割六分五厘란 前回에 比해서도 五分二厘의 增大를본 棄權率이 잇슴으로 보아 斷言할수잇다。그러므로 政府、既成政黨에 모두 不滿足한 民衆은 自然히 新興勢力으로서의 社大黨에 同情을 表하지 안홀수업게되엇든것이다。

三

總選擧의 結果 政府側이 敗北한以上 政府는 總辭職을 斷行하거나 再解散을 命하는 두가지길中 한가지를 擇하지 안홀수업다。그런데 林內閣은 政黨內閣이 아닐뿐더러 먼젓번 解散을 膺懲解散이라하리만큼 一種의 强壓的 政策을 目標하든 內閣이니만치 깨끗이 辭職하기를 不肯한다。그러타고 再解散을 斷行하기에는 너무도 國民의 意思를 無視한다는 非難에 堪當할 氣力을 가지지 못하얏다 그러므로 林內閣은 窮餘의 策으로 不得已 마친 남은 二座의 閣僚椅子中 一座를 政、民兩黨에 一人식 讓與하야 妥協을 求하게되엇다。一日 林首相이 軍臣을 歷訪하야 그意見을 打診하고 閣議에서도 所信을 披瀝하야 以上意味의 聲明을 發한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함이 아니뇨。

四

그러나 政友나 民政이나 이러한 侮辱的 妥協에 應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안는다。民政黨이 政府聲明에 即時 反對的聲明을 發한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함이 아니뇨。政友 또한 그러할것은 今次 總選擧에 政民이 聯携한것만 보더래도 알수잇다。勿論 既成政黨員中 個人的으로 交涉할지는 모르나 그 請에 應할者가 政黨에서 脫籍할것은 想像키 不難하다。그러므로 政府는 進退維谷에 路窮

時代適合한革新을 斷行할外에無道
議會刷新은庶政革新의基調
政府閣議後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今後의 政局에 如何히 對處할가에 對하야重要協議를할 重大閣議는 三日午前九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林首相以下全閣僚出席 먼저河原田內相으로부터 今回의總選擧의 結果에對하야 詳細한報告가잇슨後 이에 基하야今後의 政局에對할 政府의方針에 關하야 協議를하고 林首相으로부터

이미 總選擧는 公正히 施行되며 새로 選出된議員은滅私奉公의 精神으로써 바른時局認識下에 大政翼贊의 實을 擧하기에 努力하기를 期待한다 故로政府에서도 이期待下에 時局에 對處하야 曩者聲明한八大政策의 遂行에邁進하겟다

라고述하야 各閣僚의諒解를 求한結果 閣僚는 모두 이에贊意를表코 이어서 首相談의 形式으로써 發表할 政府聲明의 內容에對하야 協議를하야 二、三閣僚로부터 便論이잇섯스나 結局別項과 如한 內容의 聲明을 決定코 이어서 林首相으로부터 文部、拓務、鐵道三省大臣의 補充問題에對하야

可及的 速히 適宜銓衡하야 今月中旬까지는 正式으로 補充하겟다

라고述하야 閣僚의 諒解를求하얏다 그리고 林首相은 午前十一時十七分 宮中에參內、天皇陛下께拜謁코 總選擧의結果를 委曲奏上코 今後의 政局에對한政府의方針及 聲明內容을 上聞에 達한後 御前을退下 更히湯淺內府와會見코 午後零時十分宮中을 退出官邸에入하야 直時別項의聲明을 發表키로하고 午後零時二十分散會하얏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日午後零時二十分 今後의時局擔當에 關한如左의 聲明을 發表하야林內閣의 向하는바를 中外에宣明하얏다

林首相談

現下內外의 情勢를보건대時局은容易치아니하야 이것을克服키爲하야서는 因循을排擊하고 時勢에 適合한 革新을 斷行하는外에 道理업다고 信한다

먼저 大命을 拜하야 內閣을 組織하고 이信念下에 第七十回帝國議會에 臨하엿스나 議會의 刷新은 實로 庶政革新의 基調이며 帝國憲政의本義를 顯現하는 楷梯이라고認코 愼重熟慮 政策이 超越하야衆議院의 解散을 奏請한것이다 이미 總選擧는 公正히施行되여 새로 選出된議員은 滅私奉公의 精神으로써 國體의本義에 基하야 擧國의 理想을 顯揚하야 我國獨特히 憲民政治의 發達을 圖謀하야 바른時局認識下에 大政翼贊의 實을 擧하기로 努力키를 衷心으로 期待하는바이다

政府는 叙上의 信念과 이期待下에 施政奉行의 誠意다하야 時局에 對處하야 最緊要하다고認하는 庶般의政策을遂行을 期코저하다 國民諸君도 政府의 뜻의잇는바를 諒解하야 擧國一致 國運의 伸張에 協力키를 바라고잇는바이다

特別議會는八月召集
八大政策具體化

【東京電話同盟】政府는別項의聲明을 發表하고 留任키로 決意하고 近近 文部、拓務鐵道의三閣僚를 補充하야 特別議會를目標로 曩者中外에聲明한 八大政策施行에邁進할 決意를表明하엿는데 特別議會召集에 關하야는 三日閣議에서는 이에抵觸치안코 五日又는 七日의閣議에서 協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來特議會에는 林內閣獨自的政策인 所謂八大政策을 具體化할 必要가잇서 그準備에相當한 期間을要할것임으로 特別議會의 召集期는 從來의解散에依한 總選擧後의特別議會召集에比하야 多少遲延할터인바 아마八月이나되는것이아닌가觀測된다 그런데 特別議會는 憲法第四十五條에依하야 解散日부터 五個月以內에 召集하라는旨가 規定되여잇다

警察部長會議서南總督訓示光景

李鍝公殿下 神宮御參拜

李鍝公殿下께서는 昨二日午後妃殿下及 李淸殿下와 御同伴하사 非公式으로 御歸京하시엿는데 三日午前에는 陵에 御參拜한後 午後一時本邸御發 朝鮮神宮參拜後 昌德宮 李鍵公邸를비롯하야 總督 軍司令官邸를 御訪問하시고 各其御歸京 御人事를 行하시엿다

政民兩黨當選者 三百六十名以上
絶對過半數를獲得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一日開票의 結果大體豫想成績대로되여 民政黨과의 差는 겨우五名에 接近시겨 百二名을 獲得하엿는데 如上成績으로보아 남은 郡部의 開票結果 從來의 成績에 徵하야 一段增加할것은 明白하다 第一日 當選者合計는 政友會百八十二名 民政百七十九名으로되여 政友會는 解散當時에 比하야 非常한 優勢를 示하야 政民의地位를 轉倒하야 僅少하나마 第一黨을 獲得하게되엿다 따러서 政民合하면 三百六十名以上의絶對過半數를 制하야 玆에 民意의 贊同하는바가 明瞭하게되엿스므로 政府는 國民審判의 結果에 따러速히 挂冠할것이오 萬若이대로 特別議會에 臨한다하면 政民提携하야 新議會劈頭에 不信任案을 提出하야 一擧로 雌雄을 決할밧게업다고 한다.

"立憲政治에反逆"
政友도反駁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政府留任聲明에 對하야 政友會는 安藤幹事長談의形式으로써 三日左와如한 反駁聲明을發表하얏다

政府는 今後政局에 關하야今日聲明을 發하엿는데 그말하는바는 內難滅裂하야 憲政의 發達을 阻害하는바만타 政府는聲明에서 議會刷新은 庶政革新의 基調이라고하고 또는 正當한 時局認識下에서 大政翼贊의 期待할수잇다고하나 我黨은 기피時局을 認識하고 庶政革新을 痛感하는 故로第七十議會에잇서서 民政黨과協力하야 豫算을 爲始하야 各種의重要法律案成立에 誠意로써努力한것이다 그런데 이政黨의 努力을 無視하고 無謀한 解散을 斷行한것은 政府自身이다 只今에이르러 如斯한 聲明을 함은 政治의責任을 解하지못하는 立憲政治의 叛逆者이다 그우에 政府는 解散의 理由로 『此際國民의 公正한 良心에呼訴하야 반드시 天下에問한다』고 堂堂히 聲明하고 다시閣議聲明의第二項에는『民意를察하고 輿論을들으며 公明한政治運行을期한다』고發表하엿다 그런데 이選擧의結果는公正하게 施行되여『總選擧는公正하게施行되여』政民兩黨은絶對多數를 制하엿슴에反하야 政府支持派인 昭和會는 壞滅을 當하엿다 이厥然한 事實에비추어 政府는 此際斷然總辭職을함이 當然하다 그런데 國民의公正한 良心에 背하야 새삼스러히 留任을策함과 가튼것은 全然立憲政治를 蹂躪하고 全天下의 國民을 欺瞞하는것이다 我黨은 斷乎히 이陰險卑劣한 政府의態度를反擊하려는것이다

伊太利外相 알바니아國王會談

【티라나三十日發同盟】伊太利外相차노伯은 三十日午後알바니야國王조구一世를 訪問하고 數時間에亘하야 會談하엿다 席上伯은 伊太利 유고슬라비아 兩國政府間의 新政治協定에 言及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最近유고슬라비아 政府와의 間에 協定을 締結하엿는데 同協定에依하야 알바니아國에對한 伊太利政府의 政策은 아무變更이업다

一、特히알바니아國의 獨立은同協定에依하야 充分히 保障되여잇고 伊太利알바니야兩國間의協力關係는 더우促進될것이다

伊空軍、編隊로 近近東京訪問乎

【羅馬二日發同盟】伊太利空軍은 近近編隊로 東京을 訪問할려인데 이에參加할飛行機는 피아트라리호리아社는 極東定期航空路 아이리라한다 伊太利航空界의 精銳이다 他方伊太利航空會社 型二千馬力發動機一基附브레다型九臺라한다 右九臺는當初 紐育巴里間空路의 다비에參加할 豫定이엇스나 空路의다비를 中止하게된結果 東京을 訪問하게된 模樣인데 平均時速四百八十粁를내리라한다 空路는 羅馬를起點으로 브린데이시, 로도스, 하이파, 박다드, 아프카니스탄, 中國을經由하야東京에 入한 南方코스를取하야 右의開設을 計劃하는데 獨逸의루프트한자 會社와 協力하야 右空路를 東京까지 延長할豫定이라한다 하야東京에入한 南方코스를取하게될것이다

政府聲明에對하야
民政黨反駁聲明
潔白하게進退決할것을主張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三日政府의 聲明에對하야 櫻內幹事長談形式으로 左의反駁的聲明을發하엿다

政府의聲明을보매 現內閣은國民의 總意를回顧함이업시 自己獨善的態度를 不改하고 抽象的으로 時局이 容易치안타는것을 理由로하야 議員에對하야 滅私奉公을 說하야 擧國一致國運의昻揚을 要求하고잇스나 我等은 日本의內外現狀을 認識함으로써 一切의 行을버리고 眞實로 滅私擧國一致의 精神으로써 한결가티國難打開에 努力하고잇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天下周知의事實이다 그런데 現內閣은 스스로 擧國一致를버리고 理由도업는不法한 解散을 敢行하엿든바 總選擧의 結果國民은 一體하게 現內閣反對의意思를表明하엿다 이에對하야 現內閣은 容易하게 反省하는바업시 如斯한 態度를 取하엿다 果然現內閣自身이 滅私奉公의誠意가잇다고할지 又는 時局을 認識하엿다고할지 萬若林首相이 一片이나마愛國의至心이잇다고하면 一日이라도速히國民의總意에依하야 精神的擧國一致의强力한 內閣實現을要하야潔白히 進退를決해야할것이다

001029

政黨態度如何로 政局歸趨가決定
選擧法改正案 特議提出은未定

【東京電話同盟】河原田內相은三日 總選擧後 最初의 軍要閣議를 終了한後 左와如히述하엿다

今回總選擧의 結果는 前者가 猛烈하엿스나 政府도 重大決意를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事態에이르렀을지도 몰을는바 政府에 잇서서도 이 重大時局을 깊히 認識하고 새로 成立된 衆議院에 對하야 今日 要望하는것은 立憲政治의 暢達을 要望하고 잇는바 임으로 이에對하야 政黨이 어떠한態度를 取할지는 今後의問題로政府는 어데까지던지 公明正大한 態度로써 庶政刷新에 一層努力을 傾注할뿐이다 選擧法改正에對하야는 應急의 改正案에 對하야도 可及的速히 成案을 作成하도록命하엿다 今回의 特別議會에 如何한 法案을 提出할지 根本的修正案을 通常議會까지 延期할지는 今回總選擧의 結果와 相照하여 생각하고저 한다

獨經濟相巴里訪問

【巴里一日發同盟】獨逸經濟相사하트博士는 來二十六日伯林發巴里에赴한다는旨 一日正式으로 發表되엿다 사하트 經濟相의 巴里訪問은 表面巴里萬國博覽會內의獨逸館開館式에 出席하기爲함이라하나 이機會에 獨、佛經濟提携에關하야 佛政府當局과 協議하는것이아닌가觀測된다

獨外相羅馬向發

【伯林二日發同盟】獨逸外相노이라트男은 비스맑參事官과 伯林駐箚伊太利大使아트리코博士와 同道二日午前伯林을 出發하야汽車로 羅馬로 向하엿다 伊太利外相차노伯과 會見하고 도나우地域을 中心으로한 歐羅巴政局의 全般에對하야 懇談하는同時에 뭇솔리니 首相의 獨逸訪問에對한 協議를할 豫定이다 獨伊兩國代表의 頻繁한 往來에依하야 『伯林羅馬樞軸』은 漸次强化될것으로 觀測되는데 一九三六年十月의 諒解以上을 何等의 擴大되여잇지안타

『二大政黨勝利는 軍部勢力의蹉跌』
總選擧結果佛紙論評

【巴里二日發同盟】항紙는 二日의紙上에 『日本의總選擧』라고題한 社說을 揭載코 冒頭『既成二大政黨의 勝利는 林內閣을支配하는 軍部勢力의 蹉跌이다』라고斷言한後 總選擧後에잇서서의 政界의 推移를略述코 進하야如左히 述하얏다

今回의 總選擧의結果 政黨과의 協力도 亦不可能하야 內閣은 막다른골목에 다달엇다 或은 林首相은 再解散을 斷行할는지도 알수업스나 假令再解散을하야도 곳 政界에 變革을 가지고오지 안코는 信望할수업다 軍部의支配下의獨裁를 要求하는것은 勿論이지 않음으로 再解散은 政府支持의 新政黨을 樹立하기爲한 工作이 不適하다 政府의 右工作은 今回의總選擧로 因하야 甚히 希望이 적은것이 明瞭하여 도리혀 軍部의 獨裁傾向에 對한 憲政擁護의 民衆運動이 擴頭할는지도 알수업다 現在까지의開票의 結果는 最後의 全當選確定까지 同樣의 傾向을 보인다면 內閣은 過去數個月間에逢着한 難局에 再直面하야 政黨과 軍部의對立은 一層激化할것이다 他方左翼民衆運動이 强化되여 政黨이軍部의 獨裁傾向에 一致抗爭하게된다면 日本의 今後는不安하다 無産黨의 躍進은 經濟的危機를 示唆하야 輕視할수업다 兩府侯하야 日本內治外交에深刻한 影響을 與할것이다

警察部長會議出席者

官職	宿所	氏名
京畿道警察部長	太平通一 官舍一〇號	高安彦
忠北 〃	本町호텔	安田宗次
忠南 〃	朝鮮호텔	山地靖之
全北 〃	天眞樓	高島羅三
全南 〃	天眞樓	山本義一郞
慶北 〃	備前屋	八木信雄
慶南 〃	天眞樓	兵頭儁
黃海道 〃	本町호텔	坂上滿壽雄
平南 〃	備前屋	井坂圭一良
平北 〃	不知火	中對勝次
江原道 〃	不知火	瀨戶道一
咸南道 〃	本町호텔	吉良富平
咸北道 〃	備前屋	筒井竹雄
安東省公省警務廳長	平田旅館	楠木繁雄
拓務省警務課長	本町호텔	赤木親之
關東憲兵司令部付	平田旅館	齋藤美夫
間島省公署警務廳長	平田旅館	江口浩
滿洲國安東署長	平田旅館	多賀見乾吉
新京大使館警務部	平田旅館	橫山憲三
民政部警務司總務科長	平田旅館	中野四郎
警保局事務官	本町호텔	豐島章太郞
警保局事務官	本町호텔	館林三喜男
山口縣特高課長	京城호텔	永野俊雄
長野縣特高課長	京城호텔	畠村嘉兵衛

本社參觀

▲倉前町私立藝法專修學校生徒百五十名 金潤業氏引率下 本社見學

▲黃海道延白郡花城公立普通學校生七十一名 保永淸治氏 引率下本社見學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職工二十五名 伊藤嘉氏引率下 二日本社見學

人事·集會

▲久保田政吉氏(株式會社久保田政吉商店社長) 三日入京天眞樓投宿

夕刊後市況 三日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八三二〇〇 先限 八一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〇六〇 先限 八〇九〇

道會議員立候補 八百名突破

三日로서 立候補屆出이 마감되는各道會議員選擧戰은 開票日(十日)을 今後一週日 남겨노코 方今戰勢猛烈을 極하고잇다 二日 現在七百九十名인데 最終日인三日까지에는 八百名을突破할形勢로 民選定員二百八十三名에比하면 定員의約三倍를突破할모양이다 그런데 仁川、釜山 群山、鎭海等地에는 一人의立候補도업는 近來稀有의奇現狀이며 各道立候補數는 左와如하다

道	立候補數	現
京畿	八〇	(現)一七
忠北	三三	(現)八
忠南	五二	(現)八
全北	五〇	(現)一三
全南	六〇	(現)二一
慶北	七六	(現)七
慶南	六五	(現)九
黃海	六七	(現)七
平南	五四	(現)八
平北	六四	(現)六
江原	七二	(現)一二
咸南	七七	(現)三
咸北	四一	(現)一

忠淸南道會議員立候補

姜永植君

君은 現在忠南道會議員으로 明晳한頭腦와老鍊한 政治的手腕家로多年各界重要公職에歷任하야 郡內事情에精通할뿐不啻라數次道政에 參與하야郡民의福利增進을爲하야 獻身的奮鬪努力하여온我論山郡아니本道를通하야 唯一無二한志士임은一般郡民이公認하는바이오니 有權者各位께서는貴重하신淸票를勿惜하시고 同君으로하야곰期於히再選의榮을獲得하도록 支持聲援하여주심을懇望하나이다

論山郡民有志一同 白

忠南道會議員立候補

裵榮春君

君은일즉이 日本大學法學部出身의逸材로 京城帝大와本府의囑託、論山面長等重要官職에歷任하엿스며 地方發展과公益事業에獻身努力하여온 志士임은一般郡民이周知하는바임으로 今般第二回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我論山郡民은一致團結하야裵榮春君을最適任者로推薦하오니 賢明하신有權者諸位는 同君으로하야금 期必當選의榮冠을得하도록絶對支持援助하여주심을切望하나이다

論山郡民有志一同 白

推薦狀

咸鏡南道會議員立候補

韓徵維君

右君은 일즉이 加平面長으로잇서 그縱橫無雙의 敏活한行政을實驗하야 郡政에貢獻한배만헛고 그後土木及開墾事業에 全力하야 그明晳한頭腦와 自在의手腕은 到處에 大成功을 獲得한實業家입니다 特히地方發展、農村開發、窮民救濟、敎育普及等事業은 君이恒常平素에 主張하는바로 道政에參與하면 一層努力할줄로信하오니 郡利民福을爲하야 그貫徹을期함은 無論 有權者各位께서는 公正한 淸票를 惠投하심 仰望하나이다

新興郡內有志一同
新興郡內有權者一同 白

平北道會議員立候補

金信稷君

氏는 日本大學政經科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秀才로써 多年間 同仁水利組合長으로 視務하는同時에 定州實業界重鎭的 役割을하는 名望家임으로 推薦함

定州郡有權者一同

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略歷記入 履書申込 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ゼーラー万年筆

御愛用者 大賣出し

當籤發表

賞品		當籤番號
特等	蓄音電蓄스탠드 一臺式	28. 57.
壹等	特製알범 一冊式	23. 26. 21.
貳等	세-라-샤-프 펜실 一本式	2. 8. 50. 6.
參等	세-라 잉크 一箇式	殘全部 御買上時에進呈

特、壹、貳等抽籤番號의抽籤券과引換으로 買上하시는萬年筆販賣店에서 賞品을 贈呈합니다。

少年五月號今日絶版

또絶版! 또絶版! 少年五月號가다나갓다! 六月號는『幼稚園童話』特輯

號로이달열흘께나온다! 注文은미리미리느스면못산다!

(朝鮮日報社發行) 定價十錢·振替京城五八七八番

肥料商鈴鹿支店의 主任以下共謀犯罪

商貨을내세우고溫泉等地에獵色行脚

今日、一黨六名을送局豫定

背任橫領 八個年에二十萬圓

일전 불량비료판매로 본정서에걸려 모진 서리를마즌 부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이십칠번지비료상 주식회사령목상점 경성지점(鈴鹿商店京城支店)에는 또다시 그곳주임 시야륭일(矢野隆一)이하 점원등여섯명의 거액(巨額)배임횡령사건이 탄로되여 그간본정서 김경부보(金警部補)의손에 준렬한 취조를받고 잇든중 삼일로써 일단락을 짓고 사일 시야등 여섯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게 되엿다

이들의 횡령한 금액은 소화사년이래 가튼실일년만까지 실로이십여만원이란 거액에 달한다 주동자 시야는 대정칠년 령목상점동경(東京)본점점원이되엿다가 얼마안가서신호(神戶)지점으로 전근한후 박종년 처성을가진그는 그곳에서 사금(社金)륙천원을 주색에랑비하고동료의 눈총을 맛고잇섯스나 사장령목보가(鈴鹿保家)의 애호를바다 이일은 무사히 해결을짓고 소화삼년심월 경성출장소주임이되엿다 리락한성품에 또다시호걸풍을떨며 호유에호유를계속하야

표면은 상책(商策)을 표방하엿스나 기실룡산상인들과 그를이되여 비료선전이란구실아래 끈힘업시 온천과명승지등을 만유하며 련색(獵色)일삼엇스며 또는마작(麻雀)으로 푸는등에 몰두하야 이비용은전부회사의돈을 비합법적으로사용하야 회사로하야금 실로십이만칠천여원의 결손을보게한것이다

그리고 소화칠년부터는 그우에 상인의 신조(信條)를 이저버리고 오로지 친지관계에만치중하야 수원(水原)사는 손영인(孫英仁)등과 거래를하며 상대방에만 리가되도록하는 모순적장사를 하여온결과 비료대금십수만원의 미회수(未回收)와수천원의 손실을보게하엿나 이가티 배임과 횡령으로 일곱의 생활은 불과팔개년동안에이십여만원이란거액의 부정사건이 이러나게한것이다

上濁下不淸格으로 巧妙히帳簿欺瞞

서로連絡하야詐取

最高七千圓에서最低二百圓까지

또한 점원고송무(高松茂)등 네명도 시야의아래서 사무를 보아오든중 웃물이흐리면 아래물도흐리다고 주임의범행을 모방하야 서로련락을취하야가며 부당한 립체불(立替拂)을 밧는다든가 집금한돈을횡령한후 교묘히 장부를위조하야 사실을 은폐하여온것이다

시야의범행의 례를들면 려관숙박료의 계산서와 령수증등가지고 이중(二重)지불의 서류를작성하야 그중 하목을 주색에랑비하엿스며 연회비용도 이가튼 수단에의 한것이 대부분이오 또한 집금되든돈을 입금(入金)아닌 형식으로 한후에 횡령하엿스며 연회비를 절반 또는일부분 부담한것을 전액부담형식을취하야 남어지를 가지고 사복을채운것이다 그밧게 대부한형식을취한것 단독유흥을 다수인원 연회 형식으로 개찬(改竄)한것 중량한후 거리와 날자를 속인것등 기게백출(奇計百出)이다

그외점원들의 횡령한돈은 최고칠천원으로 최저이백여원까지잇나

그리고 전기손영인이가 소화칠년부터 비료위탁판매를하는 동안에 횡령한돈만이 륙만구천원이나되니 이사건이 얼마나컷다는 것을알수잇겟다

送局者住所姓名

▲蓬萊町一丁目二十七番地 主任 矢野隆一

▲南米倉町三丁目六十二番地 店員 高松茂

▲蓬萊町一丁目二十七番地 店員 竹谷政一

▲旭町四十六番地十二號 店員 金斗鉉

▲蓬萊町一丁目二十七番地 店員 佐野　

▲水原郡水原邑南水町七六番地 穀物肥料商 孫英仁

以上六名

普校新築費로 萬三千圓惠擲

槐山 金應奎氏快擧

【槐山】괴산읍민이다년요망하든 괴산의숙안―괴산공립보통학교신축문제에대하야서는 윤홍섭(尹弘燮) 류중수(劉重秀)씨 며면유지가대활동을계속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군수 김명연(金明淵)씨까지도 그필요를늣기게되여 동교신축에대하여 보조간청의뜻을 진정까지하엿든바 잇섯든바 이번 괴산군서부리(西部里)에 거주하는김응규(金應奎)씨는 보교신축비로 금일만삼천원을 자진출연하얏는데 학교당국은 물론동교신축운동에 열중하든제씨는 아연활기를띄워 더욱 로력중에 잇스며 떨어서일반사회에서는 동지의쾌거에대하여 만흔 충동이 잇다는데 씨는오십년동안 근검절약하야 그야말로 자수성가한분이라한다 왕방한 기자에게친절한태도로 무슨큰일될것이야 잇습니까마는 학교가협소한관계로 입학시에 입학수에 들지못하고울고가는어린이들을 볼때에비롯하야서 만치못한것이나 학교신축에 보태달라고 한것입니다 운운 (사진은김응규씨)

世界節制會出席次 兪珏卿女史渡米

三日午後京城驛出發

오는륙일 미국(米國)와싱톤에서 열리는세계절제회(世界節制會)에 조선대표로참석하게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朝鮮女子基督敎靑年會)회장 유각경(兪珏卿)씨는 삼일오후 네시십오분경성역(京城驛)발 특급『아까쓰끼』로려정에 올랏다 역두에는가족친지 교회측인사등다수가 전송차로나왓섯스며 씨는 오월하순에 개최되는북장로파선교백년기념식(北長老派宣敎百年紀念式)에도참석하게되는데귀국은오는팔월경이 되리라고한다(사진은경성역에서)

洋服店、印刷所의 勞賃을一齊調査

物價暴騰으로鍾路署에서管內一帶에

雇主態度를嚴重監視

세계적『물가고』와 이땅의 특수사정이 서로 어울리여서 일반물가는 작년 세말부터 현저하게 급피치로 오르고 아프로도 여전히 오를 형세를 보이고 잇서 일반 소비대중은 일상생활의 위협을 밧고 잇다는것은 이미 누구나할것업시 늣기는바이나 그중에서도 종래 례외적 저임금(低賃金)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여오든 공장로동자들은 더욱이나 이 쓰라린감을 더하고잇다 그리하야 일본내지의 강유력한 공장등에서는 물가고로 말미암은 림시수당(臨時手當)을 지급하고 잇다는 소식도 들리고 잇스나 이땅에서는 아직 이러타할만한 고주측의 적극적태도가 보이지안코잇다 즉수일전 종로서에서 시내북촌일대의 각인쇄소 양복점등에 이사실을 실지조사한결과 간혹 다소 임금을 올려준곳이잇는모양이나 대세는여전히 현상유지가지배하고 잇는모양이다 현재시내의 유력한 인쇄공장의 일인당평균임금은 팔십오전이라고한다 다른곳도 대개 이와비등한것갓고 양복점직공들의 월수입도 대개사오십원을 넘지못하고 더욱히그들의수입은계절적관계가잇서 일년평균으로보면 월수입은 이이하가되는때가만타고한다 그들의 수입의대부분은 식량비(食糧費)가점령하고잇는 실상이다 따라서일반물가 그중에서도 일반필수품의 물가등귀는 확실히이들에게 그이상업는 큰타격을 줄것이며그러타고해서 갑작히생활비를 그이상주리는수는업는것이다 고주측에서는 조히갑 양복지 갑시오르고일반 원료갑시 오르고햇스나 그대신 인쇄갑시나 양복갑슨 그비례로 오르지안햇스니 임금을 올릴수가잇습니까 하는것이 일반의 주장이다 그리하야 이곳에 고주측과 로동자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근복적 동기가잇는모양이나 좌우간 일반물가가 오르고 따라서 일반 생게비(生計費)가 전보담 일할오푼내지 이할가량 오르고잇는 형편임으로 고주측에서자진하여서 임금을 그비례로 올려주지안는 한일반 종업원의생활불안은 점점 더커갈것이며 일반 고주측에서도 각기솔선하야 종업원의 대우개선문제를 성심성의로 고려할필요가 잇다고일반은 보고잇다

德源에大山火 數千町步를燒失

附近部落民數百名動員鎭火中

損害十萬圓을不下?

【元山】이일 오후두시경에 덕원군부내면영흥리(德源郡府內面永興里) 명적사(明寂寺)뒤ㅅ산에 발화되여 때마침 맹렬히부러오는 광풍(狂風)에 불길은것잡을수업시 사오십정보송림(松林)으로된 민유림 수천정보를연소하고 가튼날오후여섯시경에는 북성면여중리(北城面麗中里)지대 일림에 연소중인데 지금 부내면경찰관주재소원이 덕원읍소방조원과 부내면영흥리、영안리(永安里)영강리(永康里)당치리(堂峙里)등사개부락민 수백명을 총동원식혀 진화에 진력중이나 원체풍세가 맹렬하야 진화공작이 뜻대로 되지안허곤난중이며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중이나 부근광산(鑛山)에서 출화되지나안햇는가추측되며 손해는 십여만원에 오르리라고하는데 이러케 큰산불은 덕원군에서는 처음보는 사실이라고한다

變心한同業商人이 集金을橫領潛跡

米價와大豆價七百七十二圓

경기도 리천군 청계면 장호원리(利川郡淸溪面長湖院里)일백―삼십구번지에사는 곽상환(郭相煥)은 가튼마을에잇는 리근용(李根容)과 미곡상을 공동출자하야 경영하고잇섯는데 전기리근용이가 지난이십구일에 경성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에 집금하려와서 시장에잇는 삼성상회(三星商會)에서 쌀갑삼백십칠원이십칠전을 집금하고 동시장공화상회(共和商會)에서대두대금이백오십칠원칠십전과 불근공일백구십팔원을 집금하야 합계칠백칠십이원가량을 가지고 어데로인지 도망하엿다하야 삼일오전에시내 각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電車內에스리

이일아츰 시내 아현정(阿峴町)삼백사십륙번지 홍상남(洪上男)은 시내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으로가는 전차속에서 도합십이원든 지갑을 어떤자에게 소매치기를 당하야 종로서에 계출이잇섯다

아버지의 밥갑대신 불모잡힌젓먹이

西大門署의斡旋으로겨우解決

날때부터崎嶇한運命

(사진은 불모잡혓든젓먹이)

삼일밤 열시쯤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에는 밥갑으로잡혀두엇든 어린아이를 내여주지 안컷다는 하숙주인내외와 밥갑은 다음이가 할려이니 아이를내여달라는 젊은녀자한명이 나타나서 경찰서의 판정을 청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고잇섯다 하숙주인은 부내고시정(古市町)삼정목일번지의 김문규씨와 그의안해 씨이며 아이를 차저가겟다는 남자는 부내통의정(通義町) 양키백화점(洋總百貨店) 박모로 그양편의 주장하는말을 종합하여 드러보면 경북청도(淸道)에 본적을 두고 지난사월까지 ―― 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 매점(賣店)을 경영하든 박순기(朴順基)라는이는 그의안해와 그어린아이한명과가티 작년팔월부터 정기원씨의 집에가서 기숙하고 지내왓는데 그동안 부내모상점에잇든 남자와 친하야 도다녀지난이월에 사나이를 나흐나 시렷다한다

그런데 동의정사는 박씨는그 발각되여 그여자는 강모에 싸 밝아숭이와 유초형제간이되는터인 밝아숭이를 남겨두고 그안친정으로 도라가버렷스므로 그아버지의 손으로 석달동안 기루어오든중 박순기는 그하숙집밥갑사십여원과 도기왕에 그하숙주인집 재봉틀한대와 금비녀한개를 빌려다가 잡혀먹은것을 가떠주지안코 지난달 그믐에 어데론지 서울을 떠나버렷스므로 그냥두어서는 아이의생명이 염려되겟스므로 그아이를 데려다가 시골로 보내서 기릅려하나 하숙주인집에서는 아이까지마저내여주어 버리면 밥갑은 영영차즐길이 업겟다고 생각하고 밥갑을 가지고오기전에는 아이를 도저히내여주지 못하겟다고 버티게 된것이라한다

경찰서에서는 아이를 밥갑대신으로 불모잡는것은 인도상으로용서할수 업는일이라하야 백방으로 설유하야 아이를차즈러간 사람에게 밥갑을 대신으로 가펴주도록 다짐을밧고 하숙주인에게는 아이를 내여주도록 계하야 겨우해결을지어 돌려보냇는데 넓은 서울이라하지마는 아버지의 밥갑대신으로 밝아숭이아들을 불모잡것다는 사실은 근래에 보기드믄기괴한 사실이라한다

色다른盜賊두名

A는外套를B는金궤치만專門

外套21件、金屬八百圓

【咸興】이십구일 함흥경찰서에 체포된 특색(特色)잇는 두절도 하나는 운남면영대리(雲南面靈臺里)에사는 백남석(白南奭)으로 지난겨울부터 부내각관공서 회사등을 돌아다니면서 외투를 전문으로 도적질하엿는대 지금 자백한것만도 이십이건의 다수에달한다

×

또하나는 본적을 영흥군선흥면문흥리(永興郡宣興面文興里)박기정(朴基定)으로 전달부터 함흥 흥남방면을 중심으로 귀금속으로만 약팔백원어치를 훔친것을 자백하엿다

漢江에漂着屍

이일오후시쯤 부내한강인도교에서 이백미돌상류 외편언덕에 중년남자의 익사체가떠잇스므로 이것을 발견한경안 회월환(花月丸)에서 곳룡산경찰서로 보고하엿다 룡산경찰서에서는 서원이 도경찰부의 고공경찰의와 현장검시를 하게된바 그는 사십칠팔세되어보이는 조선인남자로 투신자살한지 삼사일박게 안되여보이며 상당한모양인데 이마외편에는 일순가량의 흉터가잇고 힌저고리 남색조끼 회색바지 남색양말 거믄단화를 신고 그의소지품은 현금칠십오전과 마코갑가지고잇섯다고하며 신원은알수업다한다

"식어진高原戀愛"

飮毒自殺(未遂)한그女子

일일밤 열두시쯤에 시내통의정(通義町)사십부번지 안홍규(安興圭)의첩 배동순(裵東順)은 『칼모틴』륙십알을 먹고 그길로 자동차를타고 전부터 신문니잇든 시내락원정(樂園町)이백일십삼번지의삼호 김두성(金斗成)의집을 차저가서 죽으려고한 것을 곳부근병원에 입원치료한결과 생명에는 별일이업스리라고한다 그가죽으려고한 원인은 작년칠월달 못 남녀피서객으로 법석을이루고잇는 삼방(三防)약수터에서 전기안홍규와 배동순은 처음으로만나게되자 고원의맑은바람속에 그들사이에는 작열한사랑의꽃이 타오르게되엿다 두달동안의 피서연에는 남자에게 본처가잇다는 사실쯤은 별상해가 되지안햇는모양이엿스나 두사람은 바로 서울로 올너와서 전기주소에서 본마누라의 감시를 바더가면서도 흥업는 생활을계속하여왓스나 근일에와서 두사람사이에는 차차버러지기시작하야 이것을비관하고 죽으려고한모양이다 배동순은본래황해도서산(黃海瑞山)에서 잠업강습소(蠶業講習所)선생노릇도 한 녀성으로 그의어머니는 방금 함흥부본정(咸興府本町)이정목십육번지에서살고 전기 김두성의마누라와 전부터 매우친한 사이엿든만큼 죽을곳을 그곳에 택한모양이라고한다

達城에三人組强盜 牛商을毆打奪金

몽둥이로때리고百五十圓奪去

有力嫌疑者四名引致

【大邱支局電話】경북달성군달서면(達城郡達西面)소장수 리길수(李吉秀)는 이일 소세머리를 끌고대구시장으로 팔러갓다가한머리를 일백오십원에팔고 두머리는 그대로끌고 집으로돌어가든도중 오후다섯시반쯤 달성군성서면(城西面)대구라병원(癩病院)근처에이르럿슬때에 별안간 강도세명을만나 몽둥이로 마저 인사불성이 되엿슬동안에 주머니에넛든돈 일백오십원을 전부 강탈당하엿다고 소관대구경찰서에 통지하여왓슴으로 그서에서는 곳전서원을 비상소집하야 거리에 수사진을펴고 범인엄탐중인데 삼일아침에 유력피의자 네명을 인치하엿다 한다

스포ー츠欄

平壤蹴球對陣

【平壤支局電話】關西體育會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의 第十三回全朝鮮蹴球大會는 來六、七、八日의三日間 箕林里公設球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여 大會期日이 迫頭함을 따라 全平壤의 人氣는 이에 集中되고잇는데 이날의對陣은 다음과가티 抽籤決定되엿스며 第一日에는 實業團과靑年團의第一回戰을 行하고 第二日은 各團의 準決勝을 第三日에는 最後決勝戰을 行하기로되엿다

【小學團】
鎭川舍人普校…平壤箕林普校
平壤彰德學校…江東信興學校

【中學團】
崇實中學…崇德新學校
崇仁商業…光成高普

【專門】
京城世專…平壤醫專

【靑年團】
A 平壤OB團…大同郡日團
B 平原蹴球團…高麗蹴球團

【決勝】
大同靑日團…A의勝者
平壤SB團…B의勝者

【實業團】
A 文化商業…木工組合
B 東亞藥院…久田고무
C 新興마켓트…兵友俱樂部

【準決勝】
商業團…A의勝者
B의勝者…C의勝者

總府對殖銀庭球戰

接戰끄테日沒中止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二日의總督府對殖銀戰은 三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朝鮮코ー트(場所變更)에서 兩軍必勝을 期하야開戰劈頭부터 白熱戰을 演하더니 第三라운드에 드러가 總督府二組 殖銀一組의 優勢를 남기고 日沒로中止하엿는데 來八日朝鮮코ー트에서 遞信、鐵道戰이 끗난後 續行하기로되엿나

(總府) ? (殖銀)

(第一라운드)
× 金 鍾 朝 3…4 岩 田 落 合 ○
○ 金 順 平 / 嚴 秉 律 4…3 熊 原 ×
× 金 雲 成 / 盧 昌 斗 2…4 ○
○ 熊 野 御 堂 / 柳 太 龍 4…3 ×
× 張 吉 烈 / 車 應 烈 3…4 ○

(第二라운드)
○ 嚴 秉 律 / 金 順 平 4…3 落 合 / 元 田 ×
○ 熊 野 御 堂 / 柳 太 龍 4…3 ×

(第三라운드)
嚴 秉 律 / 金 順 平 ?
熊 野 御 堂 / 柳 太 龍

卓球協會今春日程

朝鮮卓球協會에서는 今年春季卓球大會의 日程을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나

▲全朝鮮實業團對抗卓球大會…五月十六日午前九時부터 京城帝大醫學部講堂

▲京城實業團對抗卓球大會…五月二十三日午前九時 (場所未定)

▲全朝鮮學生卓球大會…五月三十日午前十時부터 京城帝大醫學部講堂 (以上大會詳細規定은 追後發表할터이다)

武道大會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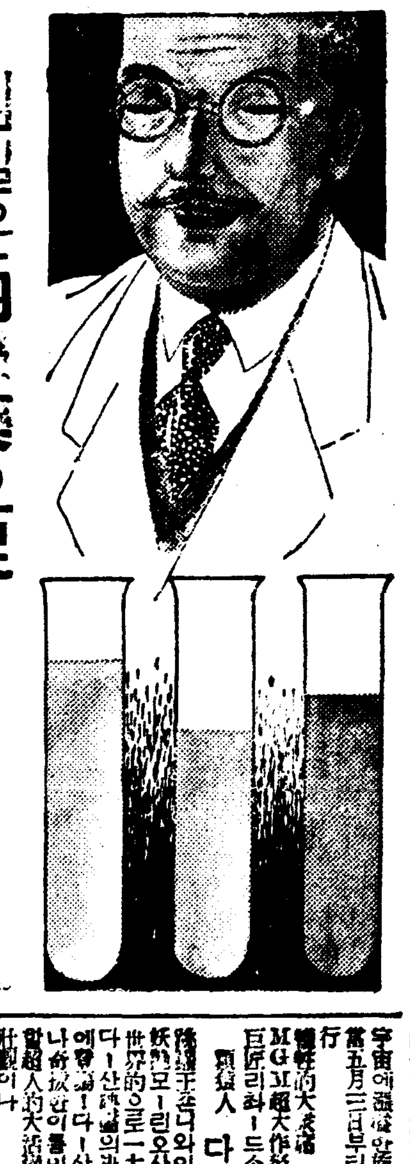
第十七回全朝鮮武道大會第二日의 各道對抗戰은 二日午前九時부터 警官講習所武道館에서 擧行한바 劍道에는 黃海道軍과 柔道에는 京畿道軍이 各各優勝하엿나

法政4 東大2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리ー그 法政對東大第二回戰은 三日午後二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伊丹(東)松井、桐上、辻(法)三氏審判下에 法政先攻으로 開始되엿바 結局四對二로法政이勝하엿나

法政 101100001―4
東大 000002000―2

림질은內服藥으로 낫지안습니다



東京日谷淋科病院院長 醫學博士 田谷利男

尿道심부에뿌리백힌 淋菌을죽여야만 根治되나니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효과가나타나는 부라온錠겐고ー루만이 직ㅂ병근에작용하여서 自宅에서라도 간단히根治되여버립니다

나의病院에 오는患者 百名中九十八名까지는 內服藥을服用해서 낫는줄알엇든것이再發되여 苦痛을밧고잇는慢性患者이엇다 엇재 이런비참한현상을 이루게되는냐하면 림질은 남녀국부ー즉 뇨도조직속에 병균이 드러가서 發病되는줄을 똑똑히깨닷지못하기때문입니다 醫藥學이 발달되기以前의 世紀前遺物로서

內服藥

(가루약 향약 환약 膠球等)을 안쓰는것보다는 낫다고하야 정말로하는 수엇시 써와잣스나 한번도 根治되엿다는 實例가 업슴은 여러분이 입이 經驗하신 증거로도 잘알수잇겟습니다 그럼으로 뇨도근처조직에서活動하고잇는 림균을 죽일야고위장을 통과하야 불과얼마되지안는 약기운이 오줌에섞겨서 그곳에作用하는 內服藥으로 엇지 그뿌리깁흔림질이 근치될리가잇겟습니까 그러기때문에 內服藥을 먹을때에는 좀낫는듯하다가는 다시 재발되고하는것이며 더구나 심한것은 보통환자가 집작만하라고 오줌에 생물이섞겨나오게한다든가 냄새를 나게만드는藥도 잇는데 그런것은 勿論근치와는전연 다른거리에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醫藥學界에서는 림질을 엇던方法으로치료하고잇는가하면 內服藥은 오줌을잘나오게하는리뇨제(利尿劑)로사용할뿐이지 淋菌전멸로法으로는 밧듯이 직접患部에 약을느어서 곳치고잇습니다 그러나 직접환부에 치료하는 局所療法中에는 一長一短의 폐단이잇서서 各國權威大家들이고심하구를 거듭하여온中 우리東洋에서 醫藥으로는 第一로치는 獨逸보다 먼저 百發百中의 淋疾근치藥을 發明하엿다 勿論獨逸의

世界的

專門大家『와렌치』『쉬라인』兩博士께서 ―内服藥으로는 淋菌이죽지안코반드시직접환부에治療하는銀劑라야된다 ―라는權威잇는學說을發表한이래 世界醫藥界의定評이되엇스나 東洋에서第一큰 靑樓―吉原遊廓의指定吉原病院長佐藤榮先生이 在任十數年동안에數萬名 림질환자의실지적治療와新학설연구에서 가장적확한 淋疾根治藥『부라온錠겐고ー루』를發明하시여 實際的림질근치약이東洋서발명되야 世界治淋界에一大센세이숀을이르키게되고 부라운錠만이 치료할수잇는 强力한殺菌力으로도 푸랍아내는듯이病菌을죽여서 림질환자를 구호해주는故로 이제는 局所療法에는 반듯이부라온錠이라야한다 새로 치료하는것이 專門大家의상식이되게되엿습니다 專門醫師의淋疾學일뿐만아니라 自宅에서도病院治療와똑가튼효과를간편히어둘수잇는藥이다

『부라온錠겐고ー루』가 世界的大發明이되자 專門醫師界에서는 無論이요 一般自宅治療界에서도 감사와아울너환영을받고잇습니다 즉 사용법이 간편하고 조금도치료상무수위험이업스며더구나치료시간이 한번에二分間밧게안걸림으로 一般自宅치료에간단하고도단시일에근치되는藥인까닭입니다 더구나겐고ー루의신효는아모리오래된고질의淋疾이라도한두번지료만하여도효과가나타나는故로 一般환자께서급성때에 세로만한여가면서단시일에근치되게됨으로 一號겐고ー루로만성때라도먼저 一號를쓰시고二號를계속하시면 특효과가조슴니다 그럼으로 淋疾로고통바드시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겐고ー루를급히사용하시사根治의기쁨을어더주시기바랍니다

闘病報告

漫性淋疾이 대번에 根治되엇습니다

尹　普　榮

(前略)나는 三四年前부터 漫性淋疾로因하야 말할수업는고통을바더오든탓으로 淋疾藥이라면 廣告만밋고 丟다는藥은 모조리써보앗습니다만 오줌빗만 물이들어서 나오거나 그렇지안코면 사용할그때만 잠시 고름나오는것이곳첫다가는 약만 끈치면 如前하게고름이나오고 해서 조금도그效果를보지못하엿습니다 넛는藥도두서너가지 써보앗스나 이亦神通한効力을 보지못하엿습니다 그런든中에 貴店의 治淋藥『겐고ー루』는根治된 親友가 시험삼고 한번만써보라고권하는데 約一個月前에 注文하여다 急性用부터 쓰기시작하야 바로 어제까지 다 썻습니다 急性用을쓸때에 전엣것과맛찬가지로 고름이나오고아푸기에 또속앗나보다햇드니 二週日分을 다쓰고나서는 고름이 아조적게나오며 별로아푸지 안엇습니다 그후 二號를쓰기시작한뒤로는고름이나오지 안는듯하기에 아침엔혹시 이 려나서꼿 팝뿌에다 오줌을 바더서 淋絲의有無를 조사해보앗드니 조곰도濁하지안코 아조정결하엿습니다 (中略) 오날까지 다른약으로 속아온생각을하면 분하기짝이 업습니다 이를기회로 아프로도 淋疾로고통당하는분을 위하야 얼마나선전하여드리겟사오며 衆하야全快된感謝의 말슴을 드리는바이올나이다

三年된만 성림질이 三十餘日만에全快

全北鎭安邑　趙　僧　同

일전에중세를말슴드린바와가티 그後의경과는 퍽良好하와 지금은조곰도 淋絲를볼수업고 말슴하신대로 술을먹어도 아무런 이상한데도업습니다 이러케 쉽게낫는줄을알앗드면 그동안巨額의金錢과時日을드려서왓든 모든藥은 큰원수가티생각됨니다 아직것동침을금하고잇스나 인제는멋덜가요……이번에제친구의分을청구하오니 이사람은약五年이나되엿는데 역시저처럼『겐고ー루』一號와 二號를十七日分식부처주시고 제妻의약도 여러번말슴하시 든듯와세도라」도 한二十여日 어치만부처주십시요

림질 환자께 기쁜소식

림질근치약『겐고ー루』의약가는 同一하나 증세에따라
一號겐고ー루……급성림질용
二號겐고ー루……만성림질용
三號겐고ー루……부인병용
의구별이잇사오며 정가는
보통약……一圓九十錢
十七日量……三圓八十錢
卅五日量……七　圓
이오니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조선국분으로 병세를 자서히쓰시고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으로 주문하시면 본보독자에한하야 송료四十七錢을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림질자택치료서 무대진정)

日東製藥合名會社 製品

宇宙에照破한疾風的大興行 當五月三日부터公開의超特別大興行

雄壯의大豪篇 料金三十錢二十錢

MGM超大作紛粹日本版 巨匠리챠ー드소ー프氏大作品!

蠻人 다ー산의逆襲

主演 와이스미아라 助演

世界的으로一大센세이숀을이르킨 다ー산映畫의決定版! 다ー산! 다ー산! 그얼마 나우리가기다렷든 超人的大活躍! 飛鳥라도擊落할 氣魄인가! 空前의豪壯한 超大作!

코롬비아超特作 全發聲大活劇篇 스펙사고ー돈배넷트氏主演

鐵風幌馬車隊

코ー바ー드ー아ー렌氏主演 마ー루나지맷드氏助演

大都映畫超特作時代大活劇篇 岡田敬監督作品!

切支丹魔伏斗入

伴淳三郎氏主演 藤山寬太郎 松原兵衛 東龍子 大山デブ子 助演

發聲 漫畫 全卷

大阪作平壯觀者! 一通西班牙戰亂大活劇

優美館 電話光三九五

五月三日부터三日間大公開 滿天下諸位愛賞篇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二回三時三十分、(夜)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七錢 均一

廿世紀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監督레ー치ー킹그氏

大傑作篇 東への道

主演 헨리・폰다嬢 로시에・하도즈氏

松竹提供 創立一週年記念映畫 第一映畫特作올ー토ー키版

原作…夏目漱石氏 脚色…伊藤大輔氏 監督…溝口健二氏

現代名篇 虞美人草

共演 夏川大二郞氏 根岸東一郞氏 月田一郞氏 三宅邦子 中川芳江 一條あや子

マキノ社超特作全發聲版 監督…松田定次氏

江戸育ち お祭佐七

主演 月形龍之介氏 澤村國太郞氏 深江嬢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四日ヨリ七日マデ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公開

演主 路絲琴・イデヒサフヤハ

地獄の爭鬪

版本日劇畵作特超社K・O・R

演主ーライホ・トーバ

旅鴉子連れ

演主手妙間久佐九三昌山杉

やくざ祭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三、 第三回 七、

永樂町 本三〇二四 888

中央館

5月1日より いよいよ封切！春の娛樂映畫の決定版登場!!

京日世界ニュース 1・50 7・15

松竹大船トーキー

出船の歌 12・29 3・40 7・27

朝日世界ニュース 5・01 8・55

ターザンの逆襲 11・00 2・09 5・13 9・09

午前十一時迄早朝御優待 大人40錢に 小人20錢に 割引

明治座

朝鮮日報 京城販賣 電本局一五七九

京城版

料金引上을無視코 郵便物發着은激增

四月中市內各郵便局所의發着通計

郵便에나타난景氣의餘韻

경성부내 우편국소에서 취급한 삼월중의우편、전신、전화의 통계는 다음과가티 인수우편에 잇서서 전년동기에비하야 삼만삼천팔백십팔통 배달우편에잇서서 삼만이천사백구십구통 전보는 발신착신수가 륙만사천삼백팔십팔통 중계신(中繼信)은 십일만일천구백칠십팔통이란 엄청난증가이다 그리고 시외통화도 수는 륙천일백사십오통 호출도 수는 구십삼통이 각각증가하야 호경기에날뛰는 통신기관의 약진상을 여실히보혀주고잇으나

區別		三月中의取扱數	昨年同期의取扱數	增減數
郵便	引受 書留及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引受 小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配達 書留及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配達 小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報	和文 發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文 着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歐文 中繼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通話	通話度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呼出度數(同上加入區域閒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工場小使는 쇠먹는도적놈

이일오후일곱시 삼십분쯤 종로경찰서에서는 부내공덕정(孔德町)십번지의 팔호에사는 청엽철공장소사 장일래(張一來)(二七)(假名)를 체포하엿다는데 그는 재작년부터 동공장에서 알미늄노쇠등을 전후륙회에 공하야절취하여다가 원정(元町)일정목에잇는 김소갑고물상(金小甲古物商)에 파른것이발각되여 체포된것이라하며 도여죄를 취조중이라한다

速達郵便利用激增

昨年中의統計

속달우편규측이 개정되여 그 료금도 싸게되고 취급구역(取扱區域)이확대 보통소포의 취급등으로 근자속달우편의 리용자가 매우증가되엿는데 소화십일년도중의 리용수는 보통통상우편 칠만구천륙백십통 특수가 삼천오백팔통 합계 팔만삼천백륙십팔통 보통소포우편 륙백일흔세개 특수가 구십륙개 합계 칠백예순아홉개 총합 팔만삼천구백삼십칠통이라고한다 이것을 전년도에 비하면 특상우편은십일할 소포우편은 이십할이 각기증가되엿다

꼿구경나간少婦出家

【仁川】 잇며누리의 비애를참나 못하야 출가한소부=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삼십팔번지라성룡(羅成龍)의며누리 호씨(扈氏)(一七)는 수년전전기라씨의며누리로다려와서 근일까지근근지내오다가 지난일일오후일시경 위미도(月尾島)꼿구경나갓다는 구실로집을나간후 이래도라오지안는다하야 이천서에 수색원을제출하얏다한다

激減하는祝融化

四月中市內火災統計

사월중의 시내화재는 여섯건이낫는데 손해는일천 사백십오원가량이다 그중신부역(新富驛)의도수는 두번으로 손해가칠백구십오원인바 이를작년구부내의 회재도수와 손해에비교하면 도수로는 여섯번 손해로는 구백삼십칠원의 감소이고 또금년일월부터 사월까지의 도수는칠십사회 손해는 이만구백 칠십륙원이고 그중신부역의 도수이십칠회 손해이천팔백이십원으로작년구부내의 일월부터 사월까지의도수팔십칠건、손해십이만일천이백십팔원에 비교하여보면 도수로는 십삼회、손해로는십만이백사십이원의대격감을보이고잇다

永登浦公普校

父兄總會

영등포공립보통학교(永登浦公普)의 정기총회는 지난 사월삼일 오후세시에 동교강당에서 개최하고 회장김태진(金泰鎭)씨사회아래 경과보고(經過)、시업총기(?)교장의인사와도 경비결산보고 금년도 경비예산결의 역원개선 규측개정등을 맛치고 동오후륙시에 무사히 폐회하얏다는데 신임역원은 아래와갓다

▲會長 金宇鎭▲副會長 □□□▲理事 黃奕鎭 □崎校長▲□□ 申□□ 李源德 崔俊永 □□□ 李鶴秀 李昌洙 □天 孔□□ 鄭寅煥 □智元 車弘 柳東馨 鄭鎭徹 朴一南 李昌云 余敬信 金福永 盧敬鳳 ▲書記 □□□ 崔秉哲

河在武 韓炳敦 姜淑子 具榮善 朱璟鉉 金聖瑞

徐椿氏講演會盛況

【開城】 본보개성지국주최와『고려청년회』후원으로 본사주필서춘(徐椿)씨경제대강연회는 예정과가티지난사월삼십일오후팔시부터 전기고려청년회강당내에서성대히 열렷나 상도개성에잇서서 씨『강연은 일반이 오래동안고대하든바로 장내는 정각전부터 대만원그 일운가운데 수정예산과 경기전노(修正豫算과景氣前途)란문제로 씨는 그시대에 따른 정당정치의 경기좌우에대한 설명ㄷ 가장구체적으로 검토하자 일반청중은 밤이깁는줄을 몰으고 귀를기우려듯다가 박수갈채속에 무사폐회하니 때는 밤십일시경이엿。

(사진은 동강연회)

三對一의大激戰

京畿道議候補屆出八十二名

마감은昨三日로!

경기도회의원(道會議員)입후보자계출은 삼일로써 마감되엿는데 이날오후다섯시까지 경기도경찰부에 계출된 립후보자수는 팔십이명에 달하엿다 정원 이십팔명 대하야 삼배가되는바 전번에 보지못한 대격전이되는 모양이다 이게출마을날로부터일주일후인 십일에 일제히 개표하게될터인데 경기도내 삼부이십군의 전루구역은 이백사십개소이고 유권자수는 이천삼백사명임으로 립후보자 팔십이명에대한 비례를 따저보면 립후보자 한사람에게 이십팔표가강하게된다

開城市民大運動會

任員을選定

當日의盛況을豫期

【開城】 금년십팔회의 돌을맛는 "개성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가티 오는십오일(토요일)공설운동장에서 본보개성지국후원미테 호회스러운막을 열게되엿다 그래서 방금주최자측인 고려청년회에서는 각종준비에분망중 당일대회에 참가할임원은 각계유지를 총망라하야 근백명이나된다는바 방명은여좌하다

大會任員(無順序)

◇大會長 孔聖學

◇副會長 孫洪駿

◇總務部 林舜福 金顯周

◇施賞部 金正浩 朴鳳鎭 金基永 崔益模 崔仁鍾 高漢鴻 黃中顯 林漢瑄 高麟泰

◇司令部 李炳哲 孔鎭恒 朴尙愚 孫漢遇 朴致宗 崔鴻□ 金顯元 孟元根 李雖泰 金東彬 徐德均

◇審判部 高漢承 馮相用 朴二鉉 劉基豐 金鍾勸 崔圭彥 秦秉燮 林敬植 朴偕舜 河孝植

◇準備部 李孝信 具滋達 韓宇榮 趙珍煥 朴昌業 孔聖東 黃柱鳳 禹相瑄 金斌鉉 河永洙 李一俊

◇計時部 韓善景 申永大 文錫璜 李聖在 金俊龍 金顯弘

◇救護部 許鑛 金壽大 高炳模

◇記錄部 玄東炎 盧秉駿 朴相哲 姜雲馨 兪在根 李鍾增

◇接待部 朴淳元 林漢祖 金泰河 張慶淳 朱德鎭 林光雨 崔鉉

◇警護部 金鎭亨 朴聖圭 李尙鎬 朴英植 李淳明 吳良慶 洪淳明 少年軍 高仁成

◇選手部 韓昌鈞 韓宗休 朴永昭 金東均 李會洸 李鍾源 玄鎭千 洪光成 黃霽

乳兒寫眞展

【開城】 본보개성지국후원과 개성사진관주최로 제삼회 유아사진전람회(幼兒寫

赤十字主催

乳兒審查發表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주최세 이회유아심사회(幼兒審查會)입선자가운데 조선아이는 다음의륙십오명이다

▲最優良組五名 (男兒三名女兒二名) 金孝貞 洪錫杓 閔庚妊 朴容圭 崔永淑

▲優良組 二十二名 (男兒十四名女兒八名) 朴□淑 李哲載 韓慶淑 洪□淳 金允經 洪淳珍 朴玉鳳 黃泰炳 李金幸 權鳳禧 文昌三 安炳德 金鍾局 李壽載 李商珍 韓樂得 鄭鎭世 兪萬植 任元明 金永均 李梓鎬

▲佳良組 三十八名 (男兒二十九名女兒九名) 李春喜 李奉中 金顯 金文燦 安榮國 曹圭善 柳完善 朴宗喆 全榮錫 孫華圭 金英信 白寅圭 李勝秀 朱昌淳 鄭俊謨 朴祥永 朴榮玉 崔京鍾 白雲福 白愛子 成乙逸 安成洙 尹民基 柳熙鶴 劉海權 朴奈鍾 崔漢洪 朴貞愛 金尙國 李揆暢 李英幸 金甲烈

朝鮮籠協主催의 籠球聯盟戰

五月六日에開幕豫定

今씨ー즌籠球界의豪華版!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第七回中等學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은 來六日부터 十五日까지(每日午後四時) 鐘路靑年會館코ー트에서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이에參加한團體는 俱樂部에延專、普專、高麗、南大門自動車學校、OB等五팀、中等部에는 A級에養正、徽文、中東、靑學、培材、B級에는協成、儆新、大東商業、中央、普成、漢城商業等十팀이다

◇綱領과規約

一、本聯盟은 運動精神과籠球技能을奬勵함으로써目的함

二、本聯盟戰은年一次五月中에擧行함

三、本聯盟戰은中等學校部、俱樂部의兩部門으로 分하야行함 但專門學校팀은俱樂部로看做함

四、中等學校部에잇서此等實力에依하야AB兩級으로分하야行함

1、A級은中東學校、養正高普、徽文高普、培材高普、靑年會學校팀等五個팀으로써 組織됨

2、B級은 昨年度B級에屬하얏든팀等과今年에 새로參加하는팀等으로써 組織됨

3、何時든지 새로參加되는팀은B級으로 編入됨

4、AB兩級의順位가 決定된後A級의 最下位팀과 B級의優勝팀과 對抗戰을하야 그의勝敗에依하야 級轉換을함

5、A級에下位팀以上이될時에는 攻防率(總失點을總得點으로除하야得한率)에最高한팀으로써 最下位팀을定함

6、B級의上位팀이二팀以上이될時에는 攻防率(前項과同함)에最抵한팀으로써優勝팀을定함

7、以上5 6項에잇서 그率이亦是同一할時에는 反則(TP共히)多小에依하야決定함

8、級轉換戰은 本部에서定한日時에行하기로함

五、本聯盟은 各優勝팀에게 本協會에서 製定한優勝盃를 各授與함(但優勝盃는優勝팀에서次回大會까지保管하기로함)

六、一選手의所屬團은一팀에限함

七、中等學校部出場選手에잇서學校長의在籍證明을要함

八、一次申請한『멤버ー』는 中途에變更함을 不得함(但聯盟戰開始前에는此限이不在함)

九、審判은 日本籠球協會發行今年度競技規則에依하야行함

十、大會使用球는 스파르딩號를使用함(運動具店特約스파르딩號)

十一、競技時間은 三十分間으로하고 中休는五分間으로定함

十二、自己팀競技時間에五分이經過하야도 出場치아니하는팀은棄權으로認定함(但主催側의理由로 遲延하는時는此限에不在함)

十三、連二次以上無故히 出場치아니하는팀은 本聯盟에서 脫退者로認定

十四、本聯盟의 規約又는 審判命令에 違反할時는 本聯盟에서 除名又는退場을命함

十五、本規約에 記載치아니한事項은 一般慣例와 審判部決議에依함

中等籠球第一日戰績

朝鮮籠球協會主催의 中等籠球리ー그第一日 京師對龍中戰은 三日午後五時부터 京師코ー트에서行한바 [illegible] 京師가大勝하엿다

京師45 (23…2 / 22…4) 6 龍中

第五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

五月廿二日에開催

女子體育의總本營인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의第五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本社後援아래 來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 運動室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者는 一般家庭婦人과女子中等校及專門校學生을勿論하고 來十九日午後一時까지 京城府光化門通一四八 同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바라며 相對者抽籤은 十九日午後五時에中央基督會館에서 行하기로되엿다 同大會의 使用球는 TY로決定되엿다

京城商工運動 各種競技戰績

旣報=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의 제십일회전경성상공련합대운동회는 지난이일 장충단에서 거행한바 이날의각종목 전적은 다음과갓다

【常識競走】▲一隊1鄭□榮(朴承稷) 3李相助(光云) ▲二隊1文恩燮(漢城製桶) 3羅斗榮(夜市)

【女子百米】▲一隊 1林鳳根(天一) 2李貞子(漢城製桶) 3柳仁順(天一) 尹同鎬(天一) ▲二隊 1金禮徒(天一) 2丁完石(天一)

【八百米】▲一隊1朴魯秀(紋昌) 2尹龍圭(韓敬善) 3崔鍾熙(我國商會)▲二隊 1方壽陳(一心堂製菓) 2朴昌植(大昌洋靴) 3李熙晋(平和堂) 金福榮(紋昌)▲三隊 1咸炳俊(天一) 2鄭守一(韓敬善) 3金□潤(夜市)

【自轉車一週】▲一隊 1韓東煥(日出精米) 2朴貞植(安一商會) 3李明元(紋昌)▲三隊1李春根(日出精米) 2金仁俊(大昌洋靴) 3金文顯(梅原)▲五隊1金敬植(三成商會) 2方壽奉(一心堂製菓) 3(平和堂) 2張順根(三成商會) 3崔興德

【珠算競走】▲一隊1朴東顯(大昌洋靴) 2朴英福(紋昌) 3朴昌淳(漢城製桶) ▲二隊 1金龍培(光云) 2金聖寬(大昌洋靴) 3韓明煥(天一)▲三隊1朴亨基(大昌洋靴) 2徐相德(漢城製綿) 3崔貞□(光云)

【女子射擊】 1李順男(天一) 2片貞宇(朴承稷) 3咸文禮(高麗織式部)

【圖書競走】 1金弘求 丁周鎭(高麗織式部) 2高吉成 朴根亨(劉永熙商店) 3崔相谷 尹東雲(韓敬善)

【小包包裝競走】▲一隊 1金点劍(朴元植商店) 2河興盛(天一) 3李谷均(大昌洋靴)▲二隊 1韓俊泰(天一) 2丁寶鎬(韓敬善) 3崔漢興(韓敬善)

【女子珠算】 1辛壽明(朴承稷) 2金貞植(朴承稷) 3金順伊(天一)

【二百米】▲二隊 1諸四石(大昌洋靴) 2李彰善(天一) 3金龍培(光云)▲四隊 1朴谷九(天一) 2嚴文吉(平和堂) 3林春和(紋昌)▲六隊 1李順興(韓敬善) 2柳完植(夜市) 3金容燦(紋昌)▲八隊 1金大俊壽同(大昌洋靴) 3李仁男(夜市)

【運搬競走】▲一隊 1印光寅(天一) 2李聖玉(韓敬善) 3金敬俊

【提燈競走】▲二隊1白南米(夜市) 2尹道龍(漢陽商店) 3李壽龍(天一) 2金龍雲(玉川屋洗布) 3韓昌煥

【製罐競走】▲一隊1李□□(天一) 2張德成(京美堂額緣) 3申□□

【女子計算競走】▲一隊 1□□□ 2李浩龍(京美堂額緣) 3□□□ ▲二隊 1金貞植(大昌洋靴) 2李貞□(天一) 3朴昌植(大昌洋靴)

【女子宿題競走】 1丁□□ 2李貞子(□□) 3辛壽明(朴承稷)

【變裝競走】▲一隊 1□□□ 2權相必(京美堂額緣) 3□□□ ▲二隊 1金龍伊(大昌洋靴) 2□□□ 3□□□

【自轉車十週】▲二隊 1□□□(日出精米) 2沈□□(平和堂) 3金容成(三成商會)▲□□ 1□□□(兄弟) 2□□□(天一) 3□□□(平和堂)▲六隊1□□□(平和堂) 2劉白談(平和堂) 3□□□(天一)▲八隊 1金永□(夜市) 2吳□□(平和堂)

【長脚競走】 1尹德龍(□□) 2崔斗鎬商店 3吳榮煥(□□)

【女子包裝競走】▲一隊 1□□□ 2崔俊□(天一) 3□□□(朴承稷) 2韓鳳洙(天一) 3□□□(天一)▲二隊1辛□□(天一) 金元伯(□□) 고다自轉車

商工運動會 寄附者芳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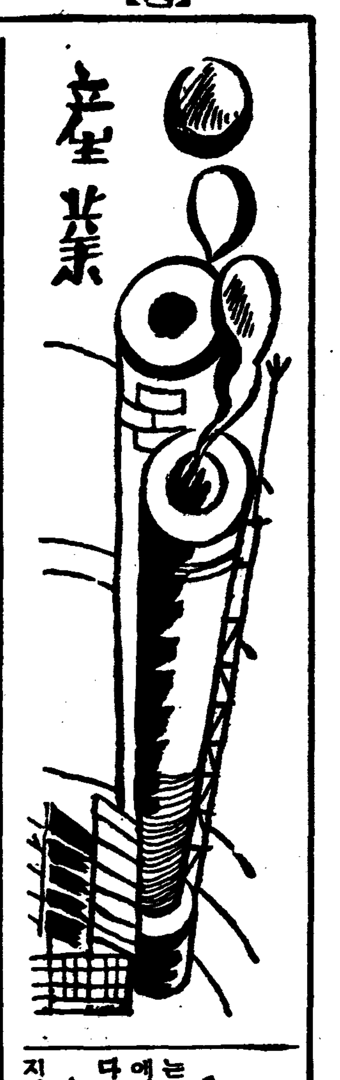
▲書籍三十部 永昌書舘 ▲間髮石鹼三打 百草堂藥房 ▲屛十冊 博文書舘 ▲金剛刀三打 東亞理髮器具會社 ▲玉五個 朝鮮理髮舘 ▲□二定 李德裕 ▲化粧品 韓商化粧品店 ▲硝子鏡三個 昌商會 ▲德永石鹼五打 計一個 明信商會 ▲純金二個 東亞金物商會 ▲□德商店 ▲海東宇一反 斗泉商會 ▲周紙五十個 鐵路時計鋪 ▲冊□個 昌盛商店 ▲石鹼三打 興商店 ▲鏡臺一座 日興商店 ▲女고무靴十足 金石商會 ▲□리一個 雲興第一支店 ▲夏服一着 寶信洋服店 ▲沃度丁幾二十個 三省堂藥房 ▲□生合服一着 大昌洋服店 ▲日木一疋 信用商會 ▲便箋紙五十冊 靑松紙物舖 ▲□二十部 德興書林 ▲色箱子五個 金仁基 ▲黑鞦韆兒靴一足 濟陽洋靴店 ▲面鏡一打 鴻成商店 ▲水瓶、□各十個 安慶昌 ▲兒目鋼匙十件 德泉商店 ▲ホロパリ半打 三漢金物店 ▲海東宇五疋 德利商會 ▲家庭尺度 廣韓書林 ▲鉛筆十□房 ▲二尺長鏡五枚 鄭泰臣 ▲五十圓 朴文執 ▲二十圓 和信 ▲十圓 永保合名會社 ▲十圓 鮮一紙物株式會社 ▲十圓 金熙俊 ▲十圓 譯南商會 ▲五圓 東一銀行西大門支店 ▲五圓 漢城精米所 ▲五圓 共同貿易株式會社 ▲五圓 東西皮革商會 ▲二圓 德永西大門支店 ▲二圓 漢興精米所 ▲二圓 石丸出張所 ▲二圓 萬花堂 ▲二圓 水野商會 ▲二圓 洪信洋服店 ▲二圓 東明商會 ▲二圓 海東商會 ▲二圓 朴永培 ▲二圓 明五商店 ▲五圓 寶晋齊 ▲五圓 大昌洋靴店 ▲五圓 九鼎商店 ▲五圓 李進雨 ▲五圓 京城化學工業所 ▲五圓 韓敬善洋靴部 ▲五圓 泰昌織物會社 ▲四圓 申泰鎭 ▲二圓 昌信商會 ▲二圓 申潤求 ▲二圓 崔斗漢 ▲二圓 文化商會 ▲二圓 玄□時計店 ▲二圓 金洙漢 ▲一圓 永昌堂藥局 ▲一圓 元光帽子商店 ▲一圓 洪鍾源 ▲一圓 大興商店

今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三日의 專賣局對殖銀(殖銀코ー트) 遞信對總督府(總督府코ー트)以上午後四時半

▲軟式野球=京城軟式野球大會第四日 準決勝은 午後四時부터 中央試驗所對□□工場 奬忠壇球場에서 擧行

▲籠球=中等籠球리ー그二日 京師對第二高普戰은 午後九時半부터 京師코ー트에서擧行



水產物增殖補助 三萬三千九百圓

增殖面積五千六百三十七町步

各道의種別補助金額

今年度의 水產增殖獎勵補助金은 이지음決定되엇는바 三萬三千九百十五圓으로 그增殖面積은 五千六百三十七町八段步이다 그리고 種別에依한 各道別補助額은如左하다

道	種別	金額	段別
咸北	岩海苔	三七五圓	一段
咸南	牡蠣	一、九〇〇	三三八
江原	岩海苔	二、〇〇〇	六
慶北	〃	二、七五〇	一九
〃	海苔	二、二三八	三三一
慶南	岩海苔	二五五	一五
	牡蠣	一、〇〇〇	一三三
	蛤	一、〇〇〇	一二
全南	海苔	一、一〇〇	三〇八
	牡蠣	四、五九〇	一、四三八
全北	海苔	一、六六五	三二七
	岩海苔	二三〇	一
	淺蜊	三三四	一五
	蛤	二三〇	一〇
忠南	海苔	六、〇〇〇	五三四
	牡蠣	二五〇	五〇
京畿	牡蠣	一五〇	五四
	淺蜊	三五	二六二
黃海	海苔	四、〇五〇	八〇〇
	牡蠣	一三〇	二五
	淺蜊	一一五	七
	蛤	一二五	七
平南	牡蠣	七九八	六二
	蛤	五〇〇	三〇
平北	淺蜊	五〇〇	三〇
	牡蠣	一、四五〇	七〇〇
	淺蜊	二三〇	一九
	蛤	三五五	一〇
計	海苔	一四、八六三	三、三〇〇
	岩海苔	五、六三〇	二八五
	牡蠣	一〇、八二〇	三、三四三
	淺蜊	一、三九四	九九三
	蛤	一、一九〇	六六
合計		三三、九一五	五、六三七、八

◆產◆業◆短◆信◆

▲立石 安州郡立石金組에서는 지난二十四日 同組合事務室에서 第十九回定總을 開催하얏다

▲素砂 素砂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五日 同地公普校에서第五回定總을 開催하얏다

▲河東 河東產業組合에서는 지난 二十五日 同組合倉庫內에서 第四回定總을 開催한바 役員의 改選 十一年度決算承認이 잇슨後組合으로부터 昨年中 組合職員의 不詳事와 其他組合의 不正事件에對하야 深刻한質問이 잇서그眞相을 白日下에 暴露하얏다

▲密陽 三浪金組에서는 지난二十五日 同地公普校에서 第二十五回 定期總代會를 開催하얏다

▲乾川 慶州郡西面乾川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三日 第十一回定總을 開催하얏다

▲光州 光州金組에서는 지난二十四日 同組合樓上에서 定總을 開催하얏다

▲全州 全州地方專賣局에서는 지난五月一日午後一時에 同局工場一室에서 昭和十一年度煙草耕作獎勵金交付式을 擧行하얏다

▲新義州 今年度에 新設된 平北水產試驗場의 職制는 左와如히 一日發表되엿는데 當分間은 道廳內에事務所를 두기로되엇다한다 場長一名(技手) 技手若干名 書記若干名

▲南旨 南旨金組에서는 지난二十二日 第三回定總을開催하고 役員을 改選하얏다

▲泗川 泗川產組에서는 지난二十六日 第四回定總을 開催하얏다

▲梁山 梁山金組에서는 지난二十七日 定總을開催하고 事業決算報告, 定款變更等을하얏다

▲南原 南原產組에서는 지난十七日 第七回定總을 開催하얏다

▲瑞山 瑞山女子農蠶學習所에서는 지난十二日 同所敎室에서 第三回入所式을 擧行한바 入所者二十名이라한다

▲榮州 慶北榮州郡主催로 苗板獎勵計畫下에 榮州, 醴泉, 奉化의 五郡聯合으로 苗板品評會를 開催코저 方今 全員의 總出動으로 郡內各十一面의 苗板에 改良施設은 勿論이어니와 播種勿論의當及을 目標로 指導에 大奔忙中이라는데 等級査定은 五月中旬頃이라하며 施賞式等은 來冬初日로 發表하다한다

▲長項 有名한 韓山苧布의 總本營이오 六千의組合員을 擁하는 舒川產業組合에서는 十一年度에 三萬二千圓의 利益을 남기고 지난二十四日 同組合廣場에서 第十回定總을 開催한바 決算報告, 理事選擧, 役員改選等이잇섯다

▲木浦 務安郡에서는 久留米絣機織을 實施한以來 그成績이 자못 良好하므로 郡에서는 絣獎勵하는 意味에서 지난二十三日부터 三日間 郡廳前에서 抗機織競技會를 開催하고 郡守가 審査長으로하야 探點하야 優勝者와 好否等으로 個人에게 各各賞品을 授與하기로하얏다

▲青陽 青陽產組에서는 지난二十一日 第十回定總을 開催하얏다

▲金海 金海中央產組에서는 지난二十四日 定總을開催하얏다

▲洪城 忠南酒造組合에서는 管內二十餘個所에서 生產되는朝鮮酒의 品質을 向上시키기爲하야 지난十八日 同地公普校에서 朝鮮酒品評會를 開催한바 三十餘個所의 酒造業者가 出品한 酒類는 十二種으로 各各陳列한後 鑑定技師의 嚴密한審査를 行한結果 入賞者는 二十三名이라고한다

▲元山 元山金融組合에서는 지난廿七日午後一時부터 大勝館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第一號議案 昭和十一年度末財產目錄, 貸借對照表 事業報告書及剩餘金處分案과 監事의意見書承認의件과 第二號議案 役員手當支給의件을 議決한後 第三號議案인 組合長, 監事, 評議中任期滿了에對한 改選을하기로되엿는바 日本內地人組合員側으로부터 前任者의再任에對한 動議와再請을 하야 鮮人組合員만의 投票行事가잇게되어 場內는 騷亂하다가 나종엔 朝鮮人組合員側도 前任者로서 再任하기로 決定하고 會議는 同六時頃갓갓다

▲甕津 黃海道甕津郡邑內에 事務所를둔 溫泉產業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七日 午前十一時부터 同事務所內에서 第三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昨年度事業報告와 監事及 評議員選擧를하얏다고한다

清津水產檢查業績

【清津】清津水產製品檢查所三月中의檢查概況은 如左하다

一、鰮토마도서―진=合格品 一〇〇個 四〇〇打 價格六五〇圓 前年同月에比하야 二、九〇〇個의出超減이다

二、鰮搾粕=合格品 三三、〇六二個 三三九、九二〇斤 價格一九、四三三圓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分之一로 激減되엿다

三、鰮油=合格品 〇四、一五四 一〇、四三三斤 價格一五、一一七圓 三月初旬以來 一進一退이엇든바 下旬에드러活氣를 보엿다

忠北道叺生產督勵

【淸州】忠北道에서는 叺織獎勵에 注力하고잇는바 三月末現在의 統計를 보면 그計畫枚數의 折半밧게 達치안는故로 當局에서는 計畫枚數達成을 各郡에通告하얏다고한다

耕牛三百五十頭 鐵原서滿洲輸出

【鐵原】鐵原의 畜牛가 그일홈이 놉흠은 只今 새삼스럽게말할必要도 업거니와 特히 今年부터 滿洲의 開拓을따라 耕農에 必要를느기여 最良畜牛를鐵原에서 購하야 지난二月에 二百五十頭 四月十九日에百頭 合하야 三百五十頭를 移出하얏스나하며 將次로 多量으로 輸出될모양이라한다

滿洲國緬羊 廿五個年計畫

【新京發商通】滿洲國產業部에서는 國內緬羊의 自給自足을하고저 廿五個年間 二百十萬頭의緬羊增殖計畫하고 北滿緬羊의改良增殖을하고저 同部에서는 千二百萬圓의 豫算으로써 國立緬羊改良牧場을 哈爾賓에開設코저目下着着準備中인바 右實業部直轄의 國立緬羊改良場은 沈家王崗驛의 西方으로서 面積八百町步의 廣大한 緬羊은 滿洲, 米國產優良種으로서 五月末頃 到着할豫定인바 六月一日부터 開設하기로되엿다 五個年計畫의 重要部門을 占하는 北滿畜產業의 發展에 貢獻할것으로 期待된다한다

砂土質畓『床締』

水原農事試驗場의試驗良好

各水組에實施計畫

砂土質畓의 床締는 數年來水原農事試驗場에서 試驗한結果好成績임으로 各道水利組合에對하야實施케하기로 되엇는바 同法에依하면 砂土質로 貯水가不良한畓도 用水量을 減하고土地의氣溫上昇이 良好하며 肥料效果도顯著하므로 營農의 一大福音이라한다

【註】床締라는것은 砂土質畓에 用水가 地下로 過度히 浸透하지안토록 畓面을 重壓하야 굿게하거나 容土를加하는것이다

恩平家畜市日決定

【恩平】지난十七日 高陽郡農會 恩平面 共同主催로 市外梁鐵里에 恩平家畜市場을 開場하얏는바 市日은 每月三日、八日 二十三、二十八日이며 지난十七日부터 二十三日까지 一週間은同市場에서 畜牛大市記念興行을 하얏다한다

慶北『전복』生產 四千箱突破?

主로中國方面에輸出

【大邱】慶北의 『전복』은 主로 中國方面에 貿易品으로 活躍하고잇는데 昭和九年(解禁時)의生產高는 二千三百箱 十年二千七百箱 十一年三千五百六箱으로年年히 增加하고잇는바 今年에至하야 工場의 統制가 實現되여 大量生產을 計畫하고잇슴으로四千箱突破는 確實視된다고한다 四打入一箱에 廿五六圓의 計算으로 生產額十萬圓으로 算定된다고한다

咸北鰮油肥組合業績

【淸津】咸北鰮油肥組合十一年度中의 事業成績은稀有의 豐漁와 高價로 同組合創設以來 初記錄을 作成하얏다는바 事業成績概要는 如左하다

一、資金貸付事業
刺網漁業 三九六、二六〇圓
巾着網漁業 一〇五、〇〇〇
定置網漁業 七五、五〇〇
原料購入 二四九、六〇〇
合計 八二六、三六〇
其中回收高 六八一、五六四

一、共同販賣事業
油受入數 三三三五五、五五六罐
粕受入高 六六四、七〇〇俵
前年度(十一年度)에 比하면 油 入十一萬五千五百罐、粕六萬俵의 增加를 示하얏다

一、前年度及立替金
油 一一、九〇七、八〇〇圓
粕 一四、〇〇七、九八〇
미―르 二、二九七、三一一
合計 二八、二九七、〇九一
其中回收金 二七、四〇三、五〇八圓

一、共同購入事業
購入高 六一五、七六九圓
配給高 五八四、九三七

蠶業咸北建設코저 獎勵施設에注力

昨年中의成績概要

【羅南】昭和十一年度에 咸北道當局에서 施行한 蠶業獎勵에關한 施設及 其成績의 概要는 如左하다

一、桑苗植栽補助 植桑株數 七四四、二二〇株 同上補助金 二、七〇六、九九圓
二、栽桑指導員設置 設置人員 一〇人 道費補助 一、〇〇〇圓
三、蠶種桑苗의共同購入斡旋 蠶種 六、五九七枚 桑苗 七四四、二二〇株
四、稚蠶共同飼育所設置 共同飼育所數 三六個所 蠶種掃立枚數 四四〇枚 收繭量 九、八八一石 經費 二、四一八圓 地方費補助金 一、七九二圓
五、蠶繭共同販賣 春秋蠶合數量 四三、三六七石 同價格 三三、七二八圓
六、蠶業取締所 製造枚數 六、三六八枚 生繭數量 四三、三六七石 桑苗生產 九八五、〇〇〇株
七、原蠶種製造所 (甲)蠶種桑苗生產及配付事業 原蠶種製造枚數 二七一枚 配付枚數 一七六枚 桑苗生產株數 七一、〇〇〇株 配付株數 五七、〇〇〇株 (乙)習生養成 練習終了生 一七名
(2) 蠶業에關한試驗調査
(一) 桑에關한試驗
가、桑樹寒害豫防試驗
나、植付의深淺과寒害와의關係試驗
다、桑園間作綠肥에關한試驗
라、秋蠶專用桑田에關한試驗
마、桑樹害虫調査
(二) 飼育에關한試驗
가、在來桑給與試驗
나、在來桑大代蠶飼育試驗
다、秋蠶一化性飼育試驗
라、養蠶의能率에關한試驗
(三) 總督府依托試驗
가、上記法의改善에關한試驗

特定部落設置 小養蠶業者指導

清道郡의蠶業村建設計畫

【清道】清道郡의 蠶業獎勵는昭和十年度產繭一萬石期成會를 組織하고 以後부터 더욱 桑田增設과植桑에 全力을다하야 再昨年과昨年의 兩年사이에 百五十萬株의 植栽數字를 보게되고 一萬石期成計畫의 最終期인 今年에는期必코 豫定한 產繭數量을 突破할 確定的成果를 세우려고 今年春秋蠶種 合一千五百枚以上의 掃立을 督勵할모양이라한다 이와同時 蠶業村을建設코저 特定部落을 設置하며 小規模養蠶者의 基本調査와 및그들의 向上에 큰힘이될 가진計畫을 세우려하는中이라는데 最近數三年間 清道郡產繭增加狀況은다음과갓다

昭和九年八千石 同十年八千五百石 同十一年九千石 同十二年一萬石期成

畜產咸北新記錄

牛飼育戶數近八百戶에 頭數二千七百餘頭增加

【羅南】咸北道에서 調査에依한 昭和十一年度末現在 道內의 畜牛頭數와 戶數는 如左하다는바 前年에比하야 頭數로二千七百十六頭의增加와 戶數로七百九十一戶의增加를 보여 好成績을 示하얏다

府郡別	畜牛頭數	飼育戶數
清津府	三五〇頭	三一五戶
鏡城郡	二、一六一	七、四三九
明川郡	一六、九六〇	九、二五三
吉州郡	六、九七六	五、三二五
城津郡	六、三〇〇	四、五五七
富寧郡	[illegible]	[illegible]
茂山郡	[illegible]	[illegible]
會寧郡	四、九三五	二、六〇四
鍾城郡	五、七六五	三、一七七
穩城郡	四、〇二七	二、二六一
慶源郡	六、五三二	二、一六六
慶興郡	六、九二一	二、二三〇
計	八八、〇二四	四九、四四六

清津에燐寸工場

日本燐寸工場 清津에誘致 七月頃開業豫定

【清津】府內清津浦에잇는 石田氏經營인 燐寸工場은 最近閉鎖의 運命에 處하야잇는바 其後日本燐寸工業組合理事小野氏가 同工場全部를 引受經營키로되야 約三十名의 熟練工을 招致하야 七月頃에는 開業準備中이라는바 同工場의 清津進出을 各方面에서 相當한關心을 가지고 注視한다는바 清津의諸條件이 新興에合致한바만다하야 將來注目되는事業이라고 指目되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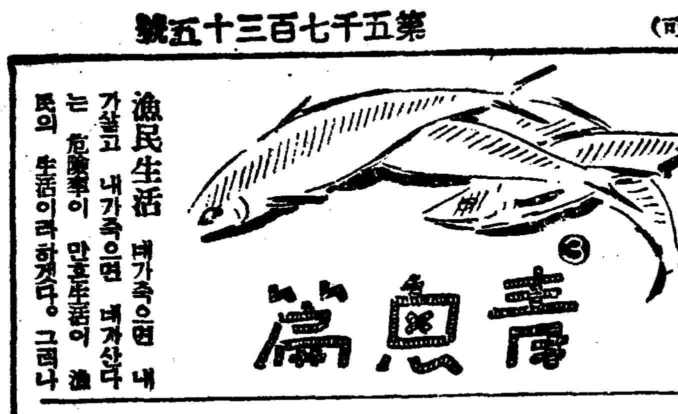
七萬圓補助 咸南서漁船改善

"디―젤"式發動機로

【咸興】咸南道에서는 漁船發動機關을 從來의『燒玉』式을 『디―젤』式으로 改善시키려고 道內漁船을 調査한結果 機船底曳網漁船 七隻 巾着船十二隻 合計十九隻이나되는데 道에서는 이漁船一隻에 對하야 改造費補助로 四千圓가량식 十九隻에 七萬六千圓을 支給할터이라고한다

北鮮製紙工場竣功

【羅南】人絹펄프製品으로 王國을 形成한 王子系의 北鮮製紙吉州工場은 諸建設工事를 大體로 竣功시켯슴으로 來五月一日 正午부터 盛大한落成式이잇다한다 同日은 社長藤原銀次郎氏以下 王子系의 首腦部가 總出動할것이라고한다



元山灣千餘漁夫 半農半漁의窮民

販賣는大概漁組에委託

元山特派員 下龍甲

漁民生活 내가죽으면 내가살고 내가죽으면 내가산다는 危險率이 만흔生活이 漁民의 生活이라하겟다。그러나

元山灣內와가티 比較的波濤가 激甚치안흔 沿岸漁業은 그러케까지 危險치안타。或是 漁物을싣고 集散地인 元山으로 가다가 또는 도라가다가 風浪에 휩쓸려 難境에 빠지는 수가잇슬뿐으로 江原道地方과 가티 怒濤激浪에 부닥처서難破되는일은 만치안타。

靑魚잡이漁民이라는것은 두가지로 논할수잇다。그하나는 漁場을 손수가지고 漁場主自身이 漁獲戰에 나서는 自獲漁民, 일은하나는 남의 漁船에 利益配當을 條件으로 또는 勞賃으로 被傭되는 共同 又는 被傭漁民이 잇다고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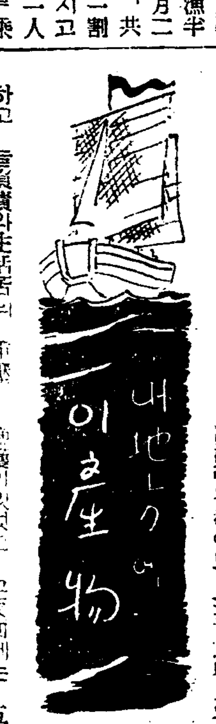
元山灣內에는 自獲漁民은 小部分에 不過하고 大部分은 共同 又는 被傭漁夫로 其數約一千餘名이다。

그들漁民은 모다 靑魚잡이 季節에는 고기를잡다가 農事時節에는 農事를짓는 半漁半農民들이다。被傭漁夫는 月二十圓乃至二十五圓을 바드며 共同制漁夫는 總漁獲高의 一割과 그折半은 漁場主가가지고 그남어지로서 船, 網을 一人分으로 잡어除하고 殘額을乘組員間에 分配한다。前者는 主로 日本內地人 漁場主의 經營方法이고 後者는 主로 朝鮮人漁場主의 經營方法이다。

이두가지에 優劣이 잇게되는것은 그해 漁獲의 凶豊에 依存하는것으로 잘잡피면 配當制漁夫는 數個月間에 三四百圓의 配當이온다。이에反하야 凶漁時에는 無一分인 境遇도잇스니 漁夫들 主로 보다면 그두經營制에 各一長一短이 잇다 하겟다。엇잿든 以上과가튼 漁業經營에 依하야 漁民은 每日 未明에出漁하야 正午頃에는 歸浦하게되는데 그들은 險한바다를 相對로 싸우느니만큼 每日과가티 술을 먹게된다。豐獲하야도 먹게되니 그들收入의 大部分은 술에消費하게되어 잘잡피다해도 큰餘裕를 엇지못하고 늘負債와生活苦의 重壓에서 시달린다하겟다。

이러케 漁民과 술은不可分의關係를매저 혹시 술때문에 水中孤魂이되는적도잇다 素約的으로 漁民의生活을 表現한다면 粗雜하고 거친 生活을 하는 것이라하겟고 그漁夫의 大部分은 뚜렷한 目標와 前途의 明朗性을일코 陰慘한貧窮生活을 한다하겟다

今年은 凶漁의憂愁를 버서나지 못햇다하니 元山灣內千餘漁民의 生活狀面을 推測하고 남음이잇슬것이다



漁業團體 漁場을 가진사람들은 農村에 비기면 自作農程度로서 一漁場만 가저도 二千圓以上 普通것도 七、八百圓을 呼價하는터이니 三、四漁場 乃至十餘漁場을 가지고잇다면 相當한 資產家라고하겟다 漁場收入은 今年가튼 凶漁라는해에도 三千圓以上의 漁獲이잇섯고 그反面에는 五十圓收入도못되는 赤字漁場도잇다 如何든漁場權는 一種의 資產이다

新規로 漁場을 經營하자면 一千五百圓 或은 二千圓以上이잇서야되고 每年漁場經營費로는 漁場과 規模에따라달으나 普通百圓乃至百五十圓가량 든다고한다 元山灣內三百餘名의 網業者中 元山 德源沿岸漁民인 二百業者는 元山漁業組合員이되어잇다 이組合은 組合員으로하야금 漁業을 營爲케하기 爲하야 漁業權을 取得하고 又는 이를 組合員의 漁業에 使用케하고 又는 漁業權의 貸付를 바드며 또는 組合員의 漁業經濟 救濟에 必要한共同施設을 하기爲하야 昭和七年에 設置한것이다。이組合의 共同施設의 種類를들면

一、組合員의 漁獲物及其製品의 委託販賣(販賣方法은 賣又는入札賣이고 販賣手數料는 再委託의境遇를 除한바 販賣價格의 百分之八以內로制限하얏다)

二、組合員의 漁業經營에必要한 物品의 共同購入

三、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資金貸附(貸附條件으로서 漁獲物及 製品의 委託販賣에 附할時 그販賣時마다販賣代金의 一割以上에잇서 組合의定하는 金額을 貸付金의 償還에 充當하고 又는 貸付金 償還準備金으로서 積立하는者에게限하고 連帶保證人二人以上과 擔保物提供을要한다。)

四、組合員의 漁業에 關한 遭難救濟。(救濟範圍는 1、漁船…)

五、其他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施設等이다。

元山漁組의 一年間委託販賣高는 每年二百萬圓以上에 達하는데 昨年四月부터 今年三月까지의 委託販賣高는 二百十二萬五千二百二十五圓二十五錢이다。그中 靑魚委託販賣高는 昨年四月부터 今年三月까지에 一萬一千三百二十八駄八十六連, 그金額이三十九萬二千二十六十二圓九十二錢이다。即元漁組委託販賣高의 四分一에 該當하야 元山灣靑魚의 地位를엿볼수잇다。

이漁組員以外의 附近漁業者는大概가 元山市內의 客主(委託賣買代行及 貿易業者)들에게서 資金의 貸附를밧고 그들을通하야 漁獲物 又는 製品을 委託販賣하는것이 大多數라는바 이에依하야 生產者는 元山漁組의 手數料와 客主側의 配當을 주게됨으로 二重의不利가 잇다고한다 ……(續)……

藥令市大邱에 藥業會社創設

今月中旬頃創立總會開催

【大邱】大邱의 名物藥令市는 文物이 發達된 今日에도 아직舊態를 버서나지못하고 古色蒼然 衰微하야가고잇서서 그改善, 擴張의 輿論은 十有餘年以來 提唱되고잇스나 그實現을보지못하고 잇든바 今般 藥業家諸氏가 1、藥材貿易及委託販賣 2、藥材品質改善及藥草栽培에關한資金融通 3、藥材委託에附隨하는 食料品等의 貿易 目的下에서 總資金三十萬圓으로 朝鮮藥業株式會社를創設하고저 遂進中이든바 總株六千株가 全部募集되엇스므로 今月五六日頃에創立總會를 開催하리라는데 總株六千株中四千株는 發起人側이 引受하고 其餘二千株는 全朝鮮藥業同志에게 公募하얏다한다 그런데 發起人側의 引受株數는 如左하다고한다

具芝書 一千三百株 金昌鎬 七百株 具香書 七百株 柳廷洛 五百株 安極善 二百株 徐炳和 二百株 黃朱河 二百株 池義元 百株 楊來震 百株 李嘉榮 百株 崔瀚周 百株

開城貿易

【開城】三月中 開城貿易狀況을 보면 移出三十一萬八千七百八十七圓 移入六十九萬二千七百十五圓 輸入九萬八千四百九十六圓 輸出十一萬六千二百十一圓 總計百二十一萬六千二百九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十三萬千六百二十六의 增加이다

日本막네製品輸出

【清津】昨年末 日本막네사이트城津工場製品「크링카―」는三百噸이 英國에 試驗輸出中에 잇섯는바 相對地에서 好評이 稍稍이고 그規格性能이 다가티 諸外國產品을 壓倒한다하야 輸入을 同社工場에 依賴하얏섯나한다 이에同社에서는 來六月以降每月二百噸式의 『크링카―』를 『리버―풀』港으로 向하야 城津港으로부터 輸出하기로되엇다한다

花島附近海서 赤貝가大豐漁

【西湖津】貝類로서보기드문 赤貝가 西湖津에서 產出된다 東海에 魚類와 貝類가 多產됨은 勿論이어니와 漁船으로 于今捕獲치못하든 稀有의 赤貝가 定平花島附近海에서 近日 豐獲되는바 其價格은 一箱에 十圓以上으로 貝類中優良品으로 各地로 輸出되는바 一日에도 赤貝獲得이 多大하니만큼 이미 許可制가되어잇는 關係上 漁民은 其許可出願에 奔忙하고잇다한다

惠山鎭에製綿工場設置

【咸興】咸南高地帶의 特產作物인 亞麻는 帝國製麻會社에서 十個年計畫으로 栽培擴張中이며 또 長白縣에도 栽培할 計畫이라고 하는데 同會社에서는 다시 이亞麻를 原料로하야 山地帶에 製麻工場을 設置할터이라는바 會社側에서 探聽한바에 依하건대 同工場은 惠山鎭으로 內定되어 방금 同地를 物色하는中이라고까지한다

果樹病害虫講習會 元山 安邊果組開催

【元山】元山果物同業組合과 安邊郡果物同業組合의 共同主催로 來五月十二、三兩日間 午前九時半부터 午後三時까지에 元山仲町公會堂에서 果樹病害虫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講師는 斯界의權威者라고한다。

平南과咸南道의 織物生產高激增

【平壤】平安南道內에서 昨十一年度中의 織物檢查數는 生紬一萬九百六十八匹、熱紬二萬八千二百四十八匹、亢羅二萬八百二十六匹、麻布六萬二千六百四十六匹、交織一萬七千三百八十一匹、合計十四萬六十三匹로 前年度의 八萬五千四百十五匹에 比較하면五萬四千六百八十四匹의 大增加를 보엿다 그런데 郡別로본다면孟山郡의 三萬匹을 最高로 德川郡二萬七千匹 陽德郡一萬八千匹 順川郡一萬七千匹의 順序이다

【咸興】咸南昨年中의 織物生產高는 一九〇、八五七疋에 一、一四三、六五五圓의 巨額에 達한다 種別로보면 다음과가트며 逐年 飛躍的發展을 보이고잇다

織物	數量	金額
麻布	一五九、八三六	九九二、六三八
綿布	一八、九三三	六八、八七三
交織物	[illegible]	[illegible]
計	一九〇、八五七	一、一四三、六五五

清州青果市場 枇杷賣買旺盛

【淸州】每年四月下旬頃이면北朝鮮各地의 店頭에 姿態를내어노는枇杷가 今年도去二十四日 一貫二百匁入五箱이 淸州靑果市場에入荷한것을 爲始하야 二十六日엔 二十七箱이 入荷하야即席에서다팔렷다한다 時勢는大略前年과同樣하야 一箱三圓五十錢程度라는바 今後相當한 活況을豫想한다고한다

▲棉布不變 米棉四五錢低 印棉三〇錢高로 材料區區하나三品各限二圓가량反騰 市中現物界는 阪地高로 氣配良好하나 取引이업고 市勢不變

▲漢藥不變 漢藥은 漸次로 夏節의 不需期로向하야 全朝鮮的으로 需要가 漸減傾向에 잇스며 目下 草材의 採取도各產地에서 行하고잇는터로 昨年風水害로 草材의 大減收의 影響도 無難히 解消될 曙光이뵈인다 이러한 關係로 草材의市勢는 不變狀態이며 其他 茸材唐材도 需要不振으로 거의保合市況인데 錦山人蔘은 昨年의凶作의 餘波가甚하야 一等品의四十片 五十片 各其昂騰되고 二等品의 五十片、六十片은 切品이다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十片	一一、〇〇	十五片	九、六〇
二〇片	一〇、八〇	二〇片	九、四〇

錦山人蔘(一匣)

一等		二等	
四〇片	三、五〇	四〇片	品切
五〇片	三、一〇	六〇片	品切

(以下單位斤)

大麻 一、八〇 赤芍 品切
白朮 一、五〇 蒼朮 一、一〇
狗脊 一、四〇 巴戟天 一、七〇
遠志 一、六五 仙茅 一、六〇
玄參 一、五〇 地楡 一、五〇
丹參 一、八〇 紫草 一、四五
白芨 一、七〇 黃連 二、八〇
胡黃連 二、八〇 黃芩 一、四〇
桑白皮 一、五〇 柴胡 一、七〇
前胡 一、四〇 防風 一、四〇
羌活 一、三五 獨活 一、三五
升麻 一、四〇 苦參 一、〇〇
白鮮皮 一、四〇 延胡索 一、四〇
貝母 一、七〇 龍膽 一、八〇
細辛 一、三五 川芎(土) 一、六五
白芷(唐) 一、四〇 白芍藥 一、七〇
良薑 一、五〇 白豆蔻 一、八〇
砂仁 一、六〇 益智仁 一、八〇
肉豆久 一、七〇 破古紙 一、四〇
鬱金 一、四〇 莪朮 一、三五
香附 一、五〇 藿香 一、四〇
澤蘭 一、四〇 香薷 一、三五
荊芥 一、四〇 薄荷 一、三一
紫蘇葉 一、四〇 蘇子 一、三五
茵蔯 一、八〇 益母草 一、三五
麻黃 一、三〇 木賊 一、三〇
燈心 一、〇〇 生地黃 一、三五
牛膝 一、五〇 白葵花 四、〇〇
決明子 一、八〇 車前子 一、三五
連翹 一、三五 萹蓄 一、三〇
大黃 一、三〇 附子 三、〇〇
大戟 一、四〇 白附子 一、三五
南星 一、三五 半夏 一、六〇
生兎絲子 一、一八 沙參 一、三五
白片豆 一、三五 五味子 一、三五
使君子 一、三〇 瓜蔞仁 一、四〇
天花粉 一、三〇 葛根 一、〇八
天門冬 一、六〇 白何首烏 一、四〇
通草 一、五〇 木通 一、一五
桔梗 一、四〇 黃芪 一、六〇
知母 一、四〇 黃精 一、三五
忍冬 一、一三 金銀花 一、五五
桂皮 一、一八 肉桂 一、五五
辛夷 一、六五 桂枝 一、五五
丁香 一、〇〇 沈香 眞三、〇〇 中四、〇〇
烏藥 一、一五 吳茱萸 一、六〇
龍腦桶八 三、三〇 大腹皮 一、三〇
黃栢 一、三〇 沒藥 一、三五
杜冲 一、六五 厚朴 一、一八
枳實 一、三八 巴豆 一、五五
梔子 一、二八 山茱萸 新一、三四
金櫻子 一、三六 郁李仁 一、〇〇
五加皮 一、五五 枸杞子 二、〇〇
牧丹(土) 一、三四 藊豆 三、三四
琥珀屑 一、八〇 猪苓 一、六〇
竹葉 一、一八 白芥子 一、五五
竹茹 一、五五 縮砂 三、八〇
乾薑(土) 一、六五 覆盆子 一、三〇
龍眼肉 一、六〇 蓮肉 一、六五
神曲 一、五五 麥芽 一、一五
五倍子 一、五五 龜板 一、四〇
鹿角膠 一、五五 朱砂 六、五〇
朱砂 六、五〇 辰朱 五、八〇
石膏 一、一〇 滑石 一、一〇
硫黃 一、一〇 白礬 一、三〇
澤瀉 唐 一、八〇 土澤 一、六〇
甘草 一束五圓 中甘 一、五五
白茯苓 去皮 自一、五〇至三、〇〇以上
上白伏神 自五〇錢以上至三圓以上
蓯蓉 生一斤一、〇〇 法一斤三、〇〇
皮當歸 切品製 一斤 一、四〇
熟地 封品 二、五五 特品 三、〇〇
枳殼 一號 三〇 二號 二八
鹿茸 一兩 自三、〇〇至一〇圓以上
熊膽 一分 六、五〇
麝香 同 一、三〇
竹瀝 小瓶 三〇
犀角 上一斤 八〇 中一斤 三〇
【天一藥房調査】

長篇小說

어머니

李箕永 作 鄭玄雄 畵 【28】

第一、靑孀篇

지난오월자취 (一)

인숙은 그뒤로 창규와 더말하고십지안핫다。그는일부러 창규를 피하엿다。성한사람도 미친개에게 물리는수가 만타。참으로 그는 미친개에게 물리려 이라고나할까?

그는 다시는 창규를 면대하기도 실엇다。그리고 그는 하루밧비 창규의집을 떠나고만십헛다。

사실 그는 유서를 써노앗다 그것은 하마터면 자살을 하기위해서가 아니다하고 하긴 창규와의 최후단판을하는그때 창규는 자기의 뱃속에서 모락모락 커나는 제자식까지 락태를 식히자는 말을 들을적에는 미상불 그즉시로 자살하고십흔 충동을 늣기엿다。

죽어서 이꼴 저꼴 안보면고만이라는 막다른생각이 드러갈뿐이엿다。

그러나 다시 돌려 생각하니 한번 죽어지면 고만인것이 생명이다 누구나 그것을 가벼히 못할일이 아닌가? 사람은 천하게 생기는것도 남한테 처소를 밧거니와 천하게 죽는것은 더욱 그러타할것이다。

비록 자살을 해야 할지라도 죽어야 할때 죽는것은 조켓지만, 미리 당겨서 죽을필요는업슬것이다。할일며 지금 죽어서 산사람들에게 비소를 당할일이 무엇이라고?……

인숙의 이러한 생각은 어루깨물고삭도 좁더 사려보자고결심하엿구。살다 살다 못살지경이면 그때 죽어도 느질것은업겟다。

그러나 또한 인숙이의 지금과가튼 생활이 언제까지나 부지할는시 의문이다、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전장에 나간 군사가터서 어느때 어디로 날디업는 총알이 날러와서 치명상을 당하게 할는지 모르나 설사 그런일은 업다한들 자기의지은죄는 조만간 고백해야 될것이다 그것은 그의모친보다도 오히려 아들에게―그리고또 만일 지금 뱃속에 든 생명이 자기와함께 죽지안코 커나게 된다면 그자식에게도 제 아비를 알려줄의무가 잇지안흔가?

그는 장래일을 생각 할수록 어떤 무서운 일이 닥처올것가태서 전신을 떨렷다。참으로자기는 이아프로 어떠케 사러갈것인가。

아직은 배가 그리 불으지 안흐니까 남의 눈을 속이고 엿지마는 불과 몃달이 안가서그것을 감출수가 업슬것갓다 그러면 누구나 의심을 하게되고 따러서 그일이 탄로나지 안흘까?……그러케되면 자기는 영영 파멸이 되고만다。그보다도 불상한 아들과 늙은 어머니까지 그들의 전정을 막을것아닌가?

설영 그러치는 안타한들 자기는 이아해를 어떠케 무사히 나어서 기를수 잇슬까? 그런 생각을 하면 락태는 자기가먼저 식히고 십다。동시에 그는 여자로 태여난 자기를 저주하고 십헛다。영자의 말맛다나 죄는 가치짓고 어째서 책임은 여자만 지게되는가? 방탕한 남자들이 죄악의 씨를 제멋대로 심어노코 다라나면 무고한 여자들만 그벌을 밧게되지 안는가? 한때의 정욕을 못참고서 미래 영구히 고초를 당하고 신세를 망치는 가련한 여자들이 이세상에 얼마나 만흘것이냐? 인숙은 그런사람들의 이야기를 죽적간접으로 듯기도하고 또는 신문과 잡지에서도 읽어보앗다 그럴때마다 그는 첫재로 남자의 횡포와 방탕을 저주하엿지만 그보다도 어리석게 속아떠러지는 여자들의 우매함을 한층더 미워하고 타매하엿섯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일이 안되고 바로 자기가 당할줄을누가 아랏스랴? 그는 참으로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아득하엿다。

자기는이제까지 제얼골에 침을 뱃고잇지안헛는가? 그런만큼 그는 다른 어떠한그런여자들보다도 죄가백배 천배 더큰것갓다 그런여자들은 정말 무지해서그러타고나하려니와 자기는 무순 입으로 그들을 흉보앗든가? 그는 자기의 그러든 입을 짓찟고 십헛다 자기는 불안전하나마 보통교육을 밧지안헛느냐? 그리고 예수를 밋지안는가?

아! 무슨입으로 자기는 여태까지 남을욕햇드냐! 그는 생각할수록 자기를 저주하고십헛다 자기는 그버림으로 입신의 고통까지 밧지안헛든가? 그의회한은 꿋까지 천벌을밧고 지옥에서 영겁을헤매리라십헛다。인숙은 날이갈수록 남모르는 근심에, 점점 더 야위만갓다。

세상일이 원래 허무하다고 드럿지만, 그는 자기에게까지이러케 속을줄은 몰낫다 실헛다。

왜그러냐하면, 자기와가티 고매한사람은 오직미둘것이라고는 자기하나박게 업섯기 때문에―